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식물생산산림과학부. 불합격. 2005년, 2월 1일. 그해 가장 추운 겨울날이었다. 인터넷 창에 나타난 이 반갑지 않은 글자들은, 이번 해에 수능을 한 번 더 보라는, 그러한 받아들이기 힘든 의미를 나에게 전달해주었다. 재수다. 수능을 한 번 더 봐야한다. 현역 때 죽어도 하기 싫었던 재수를 결국 하게 되었다. 440대 초반의 점수로도 역시 무리였던 것일까. 수능 전날 그 미칠 듯 한 초조함에 한 번 더 떨어야 할 것이고, 수번의 모의고사를 다시 한 번 봐야한다. 기출문제도 다시 풀어봐야 하고, 교과서도 처음부터 다시 봐야한다. 11월 17일 이후로 공부와는 인연을 끊었었기 때문에, 머리는 완전히 굳어있었다.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서 몸 또한 많이 망가진 상태였었다. 타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불합격 발표가 난 다음날, 강남대성학원에 유시험을 보러갔지만 당연하게도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2차 모집 때, 노량진 대성학원 무시험전형으로 넣어서 대성학원 자연4반으로 배정되게 되었다. 2월 17일에 개강을 시작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초반 학원 생활은 암울, 그 자체였다. 8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좁디좁은 교실에 몰아넣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 정도였다. 대화도 웃음도 없었다. 서로의 눈에는 재수생의 패배의식이 묻어 있었다. 점심시간의 화장실은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어 서,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약 1달간은 정말 암울하게 보냈다. 재수는 쉽게 결심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많은 눈물을 참아야 하고, 수많은 아픔들은 마음속으로 삭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수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사회에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인생은 고독한 것이고 혼자라는 것. 인내와 끈기. 3월 2일. 눈이 많이 내리던 날에, 나는 학원에 지각을 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대학교의 입학식이 있었다. 천국과 지옥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상황에서, 나는 이를 악물며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며 치열하게 공부를 해나갔다. 다음은 3월 6일에 썼던 일기의 전문이다.

죄수생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됩니다. 아침 7시 50분까지 교실로 들어가야 하므로, 이곳 등촌동에서는 6시 20분 정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터질듯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한손에는 도시락 통을 든, 이 키 작은 학생은 의심할 바 없이 죄수생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 집니다.

-마치, 제가 재수생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듯이, 다같이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한 반의 인원은 80명입니다. 3학년 때 교실보다 약간 더 큰 이 교실에 어떻게 80명이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책상은 다닥다닥 붙어있어 뒤쪽에서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 쉬고 싶을 때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거나 잠을 자야 합니다. 노량진, 시멘트와 철골로 둘러싸인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이 건물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는, 저희는 공부만 하고 지냅니다. 말할 친구도 없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사회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 떨어지지 않고, 턱걸이로 붙었다라면, 군대갔다고, 졸업할 때가 되서야 겨우 깨달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사회는 무섭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청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몇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항상 배가 곱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이고, 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몸이 아나 봅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은 어찌나 맛있던지...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재수를 통해서 참..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대학을 제가 만약 합격했다라면, 수능이 끝난 후 나태했던 그 모습 그대로 대학에 지니고 갔을것입니다. 하지만 재수를 함으로써 다시 원래의 서형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겸손한 태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잃어버렸던 저의 열정도 되찾았습니다. 화장실 갈적과 나울적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힘들었던 시기가 다 지나면 그때의 생생한 열망을 잊기 쉽습니다. 어느정도 그 느낌을 피상적으로 상기시킬 수는 있어도, 그 느낌을 다시 완전히 느끼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전 다시 공부를 시작함으

로 인해서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감정들, 열정과 꿈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법, 인생의 목표들, 두발자유화 등.... 공부를 하다보면 고등학교 때의 추억이 떠올라 혼자 싱긋 웃어봅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 같습니다. 시련이 와도 그 추억이 있으므로 모 시인의 시구처럼 희망처럼 그날을 기다리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노래가사를 읊조리며 다시 펜을 잡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3월 중순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 친구들과 하나 둘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은 서로서로 알게되고 친해지면서 반 분위기는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학원과도 친숙해졌다. 자율적인 자습 분위기와 뛰어난 선생님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대성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본 후에, 문이과로 나뉘어서, 학원 전체 1등부터 100등까지의 이름과 출신고등학교를 게시판에 붙였다. 이를 흔히 빌보드라고 부르는데, 학생들은 빌보드에 붙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는 학생들 서로간의 공부 욕구를 더 높여주었다. 학원 생활에 익숙해진 어느 하루는, 친한 친구 한명과 야간 자율학습을 안하고, 피시방에서 스타를 했다. 피시방에서 정신없이 3시간 정도 게임을 한 뒤에, 친구와 헤어지고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서, 걸잡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몸에서는 피시방에서 땀 냄새가 났고, 오늘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내준 숙제들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는 삼수를 할지도 모른다. 재수도 이 정도로 끔찍한데 삼수는 더할 것이다. 집으로 가는 버스안에서, 나는 속으로 평평 울었다. 땀 냄새가 나는 옷과 함께 나는 그렇게 헛되이 보낸 그날 하루를 후회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한 후, 난 굳은 결심을 했다. 고3 때처럼 공부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고, 결과는 제자리가 되거나 약간 상승할 것이다.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공부해선 안된다. 재수를 하는 동안에 나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 4월달까지 단 한번도 야간 자율학습 (야자) 를 빼먹지 않고 모두 하기로 결심했다. 걸핏하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집으로 가곤 했던 고3때의 나를 생각해보면, 이는 대단한 결심이었다. 몇일동안은 별 문제없이 그 결심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은 탓인지, 감기에 걸렸다. 감기는 고3 때도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였다. 수업시간에는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냥 오기로 버텨내었다. 야자가 시작된 후에는 증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콧물이 자꾸 흘러서 코가 헐고 쓰라렸다. 머리에서는 열이 났다. 너무나도 괴로웠다. 약을 먹었으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머리가 아팠다. 몸은 정말 지칠대로 지쳤다. 어리석고 감상적이었던, 어린청년의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때, 집에가는 것은 나와야 하는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가게되면 삼수다. 빈 자습실로 가서 책상위에 그냥 쓰러져 버렸다. 언젠간 이렇게 약을 먹고, 먼지 쌓인 교실에서 아픈 채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열이 나기 시작했다. 몸은 펄펄 끓는 듯했다.

난 내 자신과 싸웠다. 고독의 끝에서 혼자 나는 싸웠다. 여기서 지면 나는 끝장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는 잠이 들었다. 긴 시간이 흘렀다고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는, 30분 정도가 지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몸은 활가분했다. 방금 전에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열들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졌다. 기분좋은 땀이 나를 적셔주고 있었다. 그 날을 고비로, 나는 4월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야간자율학습을 나왔다. 수능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는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기간 동안의 공부로, 모의고사 성적이 급상승 했다는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예상을 했을 것이다. 3월달의 대성 월례고사 때의 성적은 노량진 대성 이과 2800명 정도중에서 350등 정도였지만, 4월 모의고사 때는 150등 정도를 했다. 특히나 수학 100, 영어 100, 과학탐구 180점을 맞으므로, 수외과 성적으로 학원 전체에서 16등을 하고, 전국에서는 300등 안에 들 수 있었다.

재수하는 동안에, 나는 나의 공부법에 원칙을 세웠다.

첫째로 '반복', 둘째로 '집중'. 그 두가지를 원칙으로, 학원 수업시간에 배우는 교재를 반복하고(반복), 학원 수업시간의 내용을 철저히 복습하면서, 그 때 배운 내용들 만이라도 모두 흡수하겠다는 것(집중)이

나의 생각이었다.다방면의 책에 손을 뻗쳐서 공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의 책을 배우더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고등학교 3학년 때 습득했던 공부법이 '원칙주의' 공부법이었다면, 재수하는 동안에 깨달은 공부법은 '실전주의' 공부법이였다. (두 가지 공부법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교집합과 연관성은 가지고 있다.)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법에 관한 책을 30권 이상 읽었고, 공부법 강의도 거의 다 찾아서 보았다.그것에서 쌓은 데이터베이스와 내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들, 그리고 주위 친구들의 공부하는 법을 참고해서 2월 말부터, 내가 깨달은 공부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바른공부법'을 써 나갔다.토요일 밤에 장장 6시간에 걸쳐서 쉬지 않고 써서 바른공부법 초판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난 그 공부법을 주말마다 그것을 수정해나가고 추가해나갔다. 그렇게 해서 4월 초에 어느정도 틀이 잡혔다. 그리 대단한 공부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냥 나의 공부법을 정리할 수 있어서, 나 자신이 만족했다. 4월 5일, 식목일날에, 오르비 학습동에 공부법을 올렸다.

공부법을 올리게 된 직접적 이유는, 내가 겪은 시행착오의 길을 사람들이 걷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르비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기에, 바른 공부법이 많은 반대에 부딪혀 비추천을 받고 삭제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올린 글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만족이라는 생각에 그냥 올렸다. 샤워를 하고와서 반응을 살피기 위해 글을 보니, 리플은 30개가 넘게 있었고 추천수는 10이 넘게 올라가 있었다. 불과 20분 남짓한 시간에 생긴 일이었다. 예상 외의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계속 그것을 지켜보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옷을 갈아입고 학원으로 향했다. 학원에서 자습을 하는 중에도 내 신경은 온통 온라인글에 쏠려있었지만 말이다.집에 와서 글을 보니, 나도 놀랄 정도의 반응이었다. 리플수는 100개를 훌쩍 넘어있었으며, 추천수 또한 80이 넘어 있었다. 그 글은 오르비 최초로 게시된 당일날 특별학습동으로 이동한 글이 되었다. 내 아이디(로보트)에 수십통의 쪽지가 왔고, 그 쪽지에 답변을 하느라 장장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쪽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자격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은 내가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재수생인지 몰랐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약하고, 불안감에 떠는 존재인데...그래도 내 입장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모두 해 주었다. 답장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면서, 재수시작 처음으로 행복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쪽지 또는 이메일이 왔고, 그에 대해 정성껏 답변해 주었다.5월달이 되고, 반 친구들과 거의 다 친해지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염색을 했고, 친구들과 종종 노래방에도 갔다.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축구도 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의 끈은 놓지 않고, 일정한 공부량은 어느정도 해나갔다. 공부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놀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삶을 유지해나간 시간이었다. 6월이 되고,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애와 친해졌다.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쁜 친구였다. 서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좋았다.주로 내가 그 친구를 놀리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렇게 놀렸던 것이 그 친구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말이다. 학원에 가는 것이 행복했고, 생각만 해도 좋았다. 어쩌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 재수생활의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긴 했지만 말이다. 공부는 뒷전이였다. 집중은 되지 않았다. 6월 한달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모르는 기간이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은 바닥을 기었다는 표현이 적절할듯 싶다. KICE시험도, 대성모의고사도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그리고 얼마후 내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뒤로 나는 말을 걸지 않았다.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할 때라는 마음도 섞여있었기 때문이다. 7월부터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학원 정문에는 '7,8월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7월달까지는 수능의 기본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그래서 난 2월부터 복습하고 반복해온 학원교재를, 1학기가 끝나는 7월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시작했다. '대성초이스' 수1,수2 문제집은 다 합해서 7번 정도를 다시 보았다. 풀 때도 그냥 기계적으로 풀지 않았고, 어떤 원리를 이용하고, 어떤 단원과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관찰하며 풀어나갔다. 계산실수로라도 틀린 문제는 무조건

틀린 문제로 간주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 지겹진 않았다.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졌다. 공부에서 재미를 찾은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쌓은 밑바탕은 수능에서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최상위권으로 가는 길에 특별함은 없다. 우리가 알고있는 평범함, 즉 우직한 공부 노력, 반복이 바로 최상위권으로 가는 길이다. 고통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려면 어느정도 이상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인생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를 맞아야 한다.

영어와 언어는 매일 지문을 보고 분석해보았다. 급하게 많은 문제를 풀려하지 않았고,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나갔다. 난 학원 수업을 그냥 듣지 않았다.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대충 듣는 수업은 아무것도 없었다. 앉아서 졸더라도 잠은 절대로 일부러 자지 않았다. 학원 수업이 끝나고 자습시간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날 배웠던 것을 꼼꼼히 복습했다. 배웠던 것은 이미 아는 것이라서 지겹게 느껴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복습을 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1주일간 배운 내용을 다시한번 복습을 했다. 복습과 숙제, 어느정도의 예습을 끝내고 남은 시간에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다. 이 나름대로의 계획이란, 예전에 배웠던 것을 반복학습하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수업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나가더라도, 사람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공부했던 부분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다시한번 공부를 해둬야 그 부분을 기억할 수 있다. 학원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다. 고작해야 10일정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막판에 힘을 내기 위하여 몸을 재충전하기에는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편안히 공부했다. 평균 6시간정도 자습을 한 것 같다.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거나, 장기를 두거나, 책을 읽었다. 2005년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한 날에 축구도 했었다.

그 때, 친구관계가 얽혀서 고민도 많이 했었다. 누구나 대인관계에 관한 고민은 했을 것이다. 난 나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 10일동안은 재수생활 중, 가장 인간적으로 살았던 기간 같다. 그리고 개학을 하고 학원 2학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개강날에는 고려대학교 수시모집 시험을 보러 갔다. 언어논술(요약)과 수리논술은 주말마다 틈틈히 수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왔으며, 글쓰기에도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은 장담하지 못하더라도 실력발휘를 할 것이라고 믿었다. 150: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으니, 사실 합격은 애시당초 힘들었다.

하지만 시험시간 동안에 나는 정말 '원없이' 쓰고싶은 말을 썼다. 최선을 다한 시험이었고, 떨어졌지만 후회는 없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사실 합격에 대해 조금 기대를 해서, 타격이 어느정도는 있었지만 말이다. 8월 월례고사 때에는 58등을 해서 빌보드에 올라보기도 했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만족을 했다. 정신없는 8월달을 흘러보내고, 9월달이 되니 다들 마음을 잡고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말에 학원에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작년 학교에 있었을 때는, 이맘때쯤 친구들끼리 서로 친해져서 특하면 놀러 나가고 했었지만, 학원 사람들은 인생의 쓴 맛을 보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나 또한 한번 실패를 해봤으므로, 이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9월 KICE 모의평가 시험을 보고, 수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KICE 문제는 역시 좋았고,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문제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연결 포인트를 잡아서 복합문제를 내고, 기발한 발상의 신유형 문제도 많았다. 특히나 언어영역 문제는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졌고, 모든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묻는 내용은 철저히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출제되었고, 일반 수능 문제집에서 찾을 수 있는 익숙한 문제유형들도 많았다. 수능은 알 수 없는 낯선 시험이 아니라,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시험임을 알 수 있었다.

8월부터 9월까지의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는, '맞추는 연습'을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듯 싶다. 나는 유난히 실수를 많이했기 때문이다. 모의고사를 조사해보면, 틀리는 문제의 80% 이상이 실수였다. 사실, 실수라는 표현은 옳지 못한 것 같다. '착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하다. 그 실수들을 분석해본 결과, 내가 기본내용을 잘못 공부했해서 틀렸거나, 글자를 잘못 읽거나 부주의해서 틀렸다는 것을 알게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실수가 실력이었다. 문제들을 풀면서, 아는 것이라

도 확실히 맞추는 연습을 해나갔다. 그러면서 점점 틀리는 문제수는 줄어나갔다.

9월달 이후로의 시간은 정말 후회없이 보냈다. 앞으로 수능때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이다.'인생에서 수능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고, 이 시간을 후회없이 보내고 싶다'난 모든 찰나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컴퓨터는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거의하지 않았고, 학원에 다녀오면 취약점이었던 영어듣기를 했다.매일을 규칙적으로 살았다. 자율학습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그러던 중, 10월 모의고사 전날 감기에 걸렸다. 10월 모의고사 때는 콧물과 휴지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 문제가 나를 풀었는지, 내가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당연히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불안했다. 수능도 이렇게 되면 어떨하나.... 그러나 결국 신경을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단지 컨디션 때문이라 생각했다. 모의고사 성적은 한편으로는 신경을 써야하고, 한편으로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전자는, 모의고사를 잘 보지 못한 이유가 현재까지의 자신의 나태함 때문이라면 , 이를 채찍의 방편으로 여기라는 뜻이다. 후자는,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자꾸 바꾸어 나가지 말라는 말이다. 중간에 계획을 관두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다. 모의고사가 잘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사실,7월달까지 나의 물리성적은 30점대 초반이었다. 수학 또한 80점을 웃돌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난 나를 믿고, 모의고사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획을 실행해나가서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10월달 부터는 실전연습을 해나갔다. 반에서 친한 누나와 같이 시간을 재면서 실전모의고사를 풀어나갔다. 음료수 내기를 했는데, 먹을 것이 걸려있으니 긴장도가 장난이 아니었다. 시간이 다되면, 서로 바뀌서 채점하면서, 이긴 사람은 승리자의 기쁨을 누렸고 진 사람은 패배의 쓰라림을 느꼈다. 그러한 실전 연습의 과정에서, 시험 집중력을 키워나갔다.

학생들은 시험을 보게 되면, 저절로 집중을 하게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능시험같은 중요한 시험 때에도, 집중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은 많다. 시험 집중력 또한 연습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한다. 서로 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다. 그 누나와는 지금도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수능이 가까워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해한다. 전국1등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불안의 정도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 수능이 가까워지면 다들 불안해한다.

나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실전모의고사를 풀어서 점수가 약간 빼끗하더라도 난 불안해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면적인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 불안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난 자기암시를 걸었다.'난 수능을 잘본다' '난 할 수 있다'이번엔 잘본다' '난 실전에 강한 사람이다' 이러한 어구를 일기장에 매일 써나갔고, 틈틈히 쉬는 시간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면서 불안감은 서서히 내 마음에서 멀어졌고, 자신감이란 것이 내 마음속 한켠에 자리잡을 수 있었다. 11월 모의고사 또한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성적은 남은 기간동안 나를 견고하게 다뤄준 '죽비'가 되었다. 시험이 2주정도 남은 어느날, 학원의 언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시험 못 본 것을 자책하지 말아라. 앞으로 2주는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달린 시간이다. 남은 2주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 말에 나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 어쩌면 이번 수능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선생님 덕분일지도 모른다.사실 남은 2주는 다들 어느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해이해지기 쉬운 때이다.친구들은 많이 친해져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제는 컨디션 관리할 때라고 하면서 공부에는 손을 놓는 친구들도 몇몇 있었다. 시험을 보러 집으로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었다. (대성학원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난 이 때 마지막 정리에 박차를 가했다. 1분의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마지막 정리는, 이상하게도 정리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들 투성이었다. 이 부분을 하면 저 부분이 모르는 것 같고, 그 부분을 공부하면 다시 모르는 것이 생겨났다. 주로 주말에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씩 보았다. 역시 세부적인 부분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이 많았다. 평일에는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면서, 내

가 틀렸거나, 풀면서 애매했던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 해당단원에 찾아가서 다시 확인을 했다. 마지막 2주는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공부를 했다.

컨디션 관리는 특별히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원래 해오던대로 하는 것이 컨디션 관리라 생각한다. 괜히 특별하게 잠을 더 자는 것은 생활 리듬을 깨버릴 수 있다. 수능 날짜가 다가오더라도, 그냥 난 평소시의 흐름을 유지하고 공부를 해나갔다. 주말에도 하루종일 학원에서 자습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 수능이 다음날로 다가왔다.

11.22.화요일6시 30분 정도에 잠에서 깨어났다.일단 영어의 감을 살리기 위해, 9월 모의평가 외국어 영역 지문을 다시보았다.모의평가 지문은 역시 Introduction, Topic, Support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수능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하는 마인드를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문제가 깔끔하고 좋았다. 답이 딱딱 맞아 떨어졌다. 애매한 문제는 없었다. 10시부터 학교에서 수험표 발급이 있기에 9시 50분정도에 학교로 나갔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았다. 1년만에 본 친구들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나서 깨달은것 하나. 다들 늙어있었다. 그들의 노화를 슬퍼하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나 또한 늙어있었다. 아아, 젊음은 거기 남아있어라. 망가진 피부와 하며 언발란스한 나의 헤어스타일 (사실, 수능보기 몇일전에 앞머리가 자꾸 신경쓰여서 앞머리만 잘랐다.)

1년간의 재수생활은 모두에게 힘겨웠던 것이다.

수험표를 발급받는, 진로상담실로 가보니 그곳은 n수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단, n은 2이상의 자연수이다.)

그 많은 인파속에서 힘들게 수험표 교환권을 내고 가까스로 수험표와 수능지침안내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수능 수험표가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작년과 똑같은 모양의, 사진만 바뀐 수험표. 바뀐것이 없었다.더이상 익숙해지면 안되는데...이것이 마지막이길 바랬다.학교는 대일고로 배정되었다. 대일고라면 우리집 바로 옆이라서 좋아했다. 이제 내일이야. 내일이면 수능준비도 끝인 것이다. 내일 수능이 끝나면, TV도 마음껏 볼 수 있고 잠도 마음껏 잘 수 있다. 더이상 좁디좁은 강의실에 앉아서 졸음을 참으며 필기를 해나갈 필요도 없다.예비소집을 끝내고 와서 작년 언어영역 문제를 풀어봤다. 문제들이 논리가 있고 답이 딱딱 떨어졌다.그리고 과학탐구를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한회씩 풀어봤다. 수능을 보는 것같이 집중해서 풀어봤다.

혹자는 수능 전에는 모의고사를 풀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모의고사 점수에 영향을 받아 심리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해서 한 말이다. 점수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 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로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쭉 읽어보고, 정리노트도 읽어나갔다. 8시 반정도가 되니 봐야할 것을 모두 보게 되었다. 2006년 수능을 대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냥 침대에 앉아서 1시간을 보냈다. 뭘 생각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나서 경건히 몸을 씻고 잘 준비를 했다. 10시정도에 잠자리에 들었던것 같다. 그리고 11시 45분에 일어났다. 1시간 45분 낮잠(?)을 잔 셈이다.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다.안된다. 자야되는데.....누워서 30분동안 자려고 노력했다. 눈은 말뚱말뚱 깨어있었다.

어머니께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신경안정제와 포도주를 먹였다.포도주를 먹으니 몸이 뜨거워졌다. 얼굴도 뜨거워졌다. 누가 포도주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 했던가. 혈액순환이 너무 좋아져서 뇌혈압이 다 느껴질 정도였다. 몸이 완전 흥분이 되었고 잠은 안오지 미칠 지경이었다. 난 떨고 있었다. 별 생각을 다했다. 이러다가 잠 못보고 시험장에 가서 망치는것 아닌가. 삼수하는것 아닌가. 정말 많이참고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난, 기도를 했다. 부처님.

전 이번 시험에 대비해 최선을 다해왔고 평생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적이 없습니다.지난 1년간, 후회는 없었습니다.제 능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테니 제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저의 보통의 실력만 발휘하게 해줄 그러한 여건만 마련해주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한번만...
딱 한번만..
제발 이번만이라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난 일생동안 가장 절실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했다.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깬 상태였는지.
그러한 반 혼수상태로,
나는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될 수능날의 아침을 기다렸다.

11.23.수요일.
6시 반정도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을 푹 잔지는 못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대일고등학교로 걸어갔다.
산책 나가는 기분으로 뒤쪽 산길을 통해서 걸어갔다.
내가 채수하는 동안에 가장 고생하신 사람들은 바로 나의 가족들이었다.
정말 말 못할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이다.
장남인 아들이 채수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걷는 중에 난 대일고 앞에 와 있었다.
시험을 잘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부모님께 다지고, 난 그렇게 홀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인생은 고독하다.
결국은 혼자다.
인생은 결국 혼자인 것이다.
혼자 절정의 끝에서 싸워야 할 순간이 있다.
내가 결정해야할 그런 순간이 있다.
이번엔 아니다.
이번엔 잘본다.
반드시 잘본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운명이란건 정해져 있지 않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적 개념일 뿐이다.
고로 미래는 없다. 현재만 있을 뿐이다.
현재만 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1교시 종이 울리고 언어영역이 시작되었다.듣기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지문들을 쭉 훑어보았다.
대부분 아는 지문이라서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았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상하게 너무 쉬웠다.
쉬우니 나는 오히려 불안해했다. 어려워야지 변별력이 있는데,.. 마지막에 2문제가 남았다. 답은 결정해
났는데 웬지 불안했다. 종료 1분을 남기고 2문제를 모두 고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둘다 틀려버렸다. 그순
간, 내 언어영역 백분위는 폭락한 것이다. 1교시가 끝나고 다들 쉬웠다는 소리를 했다. "30분 남았다" "
이런적 처음이다" 초조했다.

2교시 수리영역.9월 모의평가 때 수리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났으므로, 가형은 더욱 어렵게 낼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다른 아이들은 쉬운 언어영역 때문에 조금 들떠있는 것 같았다.수리영역을 한 7번쯤 풀어가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이걸 내가 알던 수리영역이 아니었다. 어려웠다. 잠시 잘못 생각하면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 그와 동시에 난 이런 생각을 했다.' 재학생들은 죽었구나.' 주관식으로 넘어가니까 재수를 한 나도 난생 처음보는 문제들이 나왔다. 그래도 각 단원의 개념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접근하니 풀렸다. 미분과 적분에서는 주관식 30번을 결국 못풀었다. 찍으려니까 참 답답했다. 12로 찍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답은 11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제가 정말로 아깝다. 좀더 침착했어야 하는건데..... 수리영역이 끝나니 다들 죽을듯한 인상들이었다.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난 좌절을 해봤자 지금은 늦었다는 생각에, 일단 밥을 재빨리 먹고 잠부터 자기 위해서 자리에 누었다. 자려고 하는 도중에 계속 수리영역 문제가 생각나고 불안했다. 난 나를 믿었다. "어려웠지만, 잘했을 것을 믿는다. 점수여, 부탁한다."

잠을 자진 못했지만, 그래도 힘을 재충전할 수 있었다.

3교시 외국어 영역은 듣기와 함께 시작되었다.듣기.1년동안 그렇게 연습해왔던 듣기.작년 그 악몽의 여자성우가 생각이났다.처음에 잘 나가다가, 9번정도를 가는데 긴장때문에 숫자계산 부분을 못들었다. 1550달러가 1400달러가 초조해졌다. 땀이 줄줄 흘렀다. 한문제에 대학이 몇개가 달려있는데..... 하지만 그 순간 '그래. 이걸 버리고 남은거나 잘하자' 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중에 들어갔다.듣기를 다하고 지문을 읽어나갔다. 9월 평가원과 체감난이도가 비슷했다. 그리 큰 차이는 없었다. 다 풀고 시간이 15분정도 남았다. 듣기 9번은 4번에 있는 것밖에 듣지 못했기에, 4번으로 찍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답이었다.나이스.무난하게 3교시가 끝났다.

이제 과탐만 보면 끝난다. 과탐만 보면 끝이다. 이제 수능이 끝나는 것이다. 쉬는 시간에 친구를 만났다. 어찌 그리 반가웠던지..지난 재수생활을 회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생많았다.. "

웃으면서 서로 잘보라고 하면서 4교시 준비를 위해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이젠 허리가 아파왔다.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탐구를 풀어나갔다. 물리1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다 푸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수능 물리는 역시 계산은 하나도 없었다. 원리, 이해만 묻는 문제였다. 화학1은 거의 다 교과서의 소재가 나와서 놀랐다. 수능 2주전에 화1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본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에 3점짜리 한 문제를 고쳤는데, 이는 보기 좋게 틀려버렸다.생물1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기에, 편하게 풀었다. 생식기 문제는 당황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틀렸지만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었다.화학2는 문제집엔 없지만,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나 소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다. 난이도는 예상했던 대로 높았다. 역대 화2 문제중 난이도 최고가 아닐까 싶다. 마지막에 틀린 것을 발견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화학2 20번의 마킹을 끝냈을 때의 흥가분함과 해방감이란. 작년에 끝날 때 느낀 그 암울함과 대조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끝났구나.....

학교를 나서는 길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았다.

태어나서 단 한번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한 적은 없었다.

태어나서 단 한번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지나가는 중 만나는 사소한 모든 의미들은, 그 순간에 맞닿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남모르게 혼자 삭혀야 했던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은, 그 지나간 시간들은 이제 재수생의 비참한 현실로

각인되는 기억이 아닌 내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 추억으로 남겨진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

그렇게 수능이 끝난 후, 원서는 인하대학교 의예과, 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부, 한림대학교 의예과, KAIST를 썼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가군에 경희대학교 한의예과나 한양대학교 의예과를 넣었으면 합격할 수 있던 점수였다. (두곳 다 점수가 예상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래부터 목표는 서울대 전기공학부였기 때문에, 다른 곳은 위험하게 원서를 쓰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면접준비는 약 2주전부터 했다. 학원을 다니다가, 수업이 맞지 않아서 혼자 공부를 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했다. 화학은 하이탑으로 공부를 했고, 수학은 심층면접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했다. 수학은 포항공대와 서울대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했다. 면접은 1월 18일에 있었다. 점수가 어느정도 남았기 때문에, 면접은 평균적으로만 봐도 붙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부담은 없었다.

2006년 1월 18일 날이 밝았다.

오전은 화학, 오후는 수학이었다. 화학 순번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학원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내 차례를 기다렸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목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는 목걸이(?)를 걸고, 1조부터 10조가 함께 나가서 면접을 봤다.

잠을 4시간밖에 자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보충하려고 1시간 정도 자리에 누워있었다.

긴장이 돼서 잠이 안오자, 그냥 집에서 갖고온 하이탑 3권을 봤다.

3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내 차례가 왔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긴장감이 거의 다 풀린 상태였지만, 목걸이를 걸고 자리에서 일어나니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난 할 수 있다. 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하고 자기암시를 하면서 시험장으로 갔다.

시험장이 따로 마련되어있을줄 알았는데, 복도에 있는 책상에서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황당했다.

책상에 앉고 시험지를 받고, 시험지와 대면한 순간. 난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다.

화학 면접문제인데 ‘시’가 나와있었던 것이다. 무슨 언어영역도 아니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시를 읽어나가는 도중, 별 거 아닌 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1번문제를 풀어나가니,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용어가 생소했다.

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니 큰 어려움은 없었다.

5번 문제까지 막힘없이 잘 나가다가,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대목에서 헛갈려서, 시간을 모두 소모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면접실로 들어갔다.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내가 푼 것은 최대한 빠르게 설명했다.

힌트를 얻고, 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3분정도만에 내가 푼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었고, 5번문제는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풀 수 있었다.

6번문제는 시간이 모자라서 손도 대지 못했다.

아쉬웠다. 끝나고 나와보니,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다.

농생대에 지원한 누나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전화를 해보니, 이미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다.

묘한 실망감(?)을 느끼며 공대 식당에서 밥을 혼자 먹었다.

기독교 동아리 선배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셔서 고마웠다.

밥은 혼자 먹고, 못푼 문제는 자꾸 생각나고...머리가 복잡했다.

거의 좌절모드였다.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화학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다행이었다.

‘괜찮아. 평균정도는 봤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다시 마음을 잡았다.

점심을 다 먹고, 학부로 대기실의 빈 자리에 가서 낮잠을 잤다.

옆에서 떠들어서 잠을 잘 수는 없었지만, 어느정도의 휴식은 취할 수 있었다.

수학 시간이 되자, 난 대기실로 이동했다.

전컴지원자 240명을 두 강의실에 나뉘는데, 그 중에 여자는 4명밖에 없었다.

공대의 암울함이 절실하게 느껴졌다. 그 암울함을 더하는 것은, 나의 면접 순번이었다.

뒤에서 4번째였다.

1시부터 6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린 것 같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못해 옆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옆 친구는 강남대성학원 출신이었고,

우리는 통하는 것이 많아서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수학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갔다.

내 차례가 왔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칠대로 지쳐있었지만 정신을 다시 가다듬었다.

시험장으로 가서 문제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풀어나갔다.

1-1과 1-2는 익숙한 유형의 문제라서 쉽게 풀 수 있었다.

2번 문제는 작은 문제가 4번까지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원 안에서 작은 원이 도는 문제였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2-1은 그 자취가 ($\cos^3 x$, $\sin^3 x$)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3x$ 의 각으로 도는 것까지는 구했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접근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10분이 지났음을 알리는 소리가 났다.

아..떨어지고 마는 것인가. 이대로는 안되는데.

2-1은 그냥 넘겨버렸다. 2-2부터 봤다.

곡선의 개형을 그리라는 문제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얼핏 본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그렸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것은 정답이었다. 2-3과 2-4는 대성학원 수학 조두식 선생님께서 한번 풀어주셨던 문제였다.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렇게 2-1을 풀지 못한 채 면접실로 향했다.

역시 빠른 속도로 내가 푼 문제를 설명을 했다.

교수님은 2-1을 다시한번 풀어보라고 하셨고, 1-1과 1-2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셨다.

그 부분 외에서는 만족하게 설명한 듯 했다.

하지만 난 끝까지 그 못풀거나 틀린 부분의 답을 찾지 못했고, 제한시간이 다 돼서 나가야만 했다.

만족할 정도로 면접을 보진 못해서 마음이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정도는 봤겠지’ 하고 긍정적인으로 생각을 했다.

오르비에 가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니, 거의 다 상황이 나와 마찬가지로였다.

2-1을 푼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것이다.

내 점수가 165.94였는데, 이는 1배수 컷보다 약간 위의 점수로 추정된다.

면접을 중간 이상만 한다면 합격을 기대할만한 점수였다.

잘만 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2월 2일. 서울대 발표날.

성당 사람들과 같이 피정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다.

저녁 5시 30분쯤, 몰래 아버지께 문자를 보내서 결과를 여쭙보았다.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온통 그 생각 뿐이었다.

떨어져서 전화가 안오는 걸까.

정말 떨어지고 만 것일까...면접 준비좀 열심히 할걸.

아버지는 얼마나 상심하실까.

그 30분간은 나에게 100만년처럼 느껴졌다.

100만년이 막 지났을 즈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어~ 축하해요~서울대생~"

아버지의 기쁨에 찬 목소리였다.

난 확실하나며 아버지께 재차 여쭙봤고, 아버지께서는 확언의 대답을 해 주셨다.

너무 기뻐다. 날아갈듯이 기뻐다.

성당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 후배와 껴안고 합격의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그곳은 피정의 집이기 때문에, 남들 다 보이는 곳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일.

합격의 기쁨은 잠시, 다시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

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억제하기에 바빴다.

3월 9일의 재수일기와 같은 구절로 글을 마무리하련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짧은 날의 생이여"

바른 공부법

****전제 :**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독특한 공부방식이 있다. 아무리 우매한 공부법이라도 노력만 하면 결국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이 공부법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목표실현에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신은 올바른 공부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적은 시간해도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시간의 양이 먼저이고, 그 양의 공부를 최적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공부법이다. 양은 많은데, 실력은 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부법인 것이다. 적은 노력으로 지름길로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전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평균 60점대를 웃도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학원에서의 저는 공부는 안하고 웃기기만 한 놈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재의 상위권까지 오르게 되면서, 거의 모든 계층(?)의 감정을 공유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에서 상위권까지, 모든 계층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하위권의 그 다급한 마음에서부터 상위권의 그 불안함까지-

현재 시중의 공부법 책들과 강의들은 학생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진실되고 참된 조언을 하기 힘듭니다. 그들은 'what'을 가르쳐 주지만 'how'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작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what'이 아니라 'how'인데도 말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자신을 유지하냐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는 것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그렇게 남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공부방법과 노하우들도 수능이 끝나니 모두 기억이 안나더군요. 단지 생각나는 말들은 열심히 해라..계획짜라..그런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고3생활동안 썼던 일기장과 기억들을 다시 반추하며 데이터들을 다시 모으게 되었고, 또한 어떤 계기로 수능 공부를 다시하게 되면서- 어설프나마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공부법들을 마련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그러한 말들이 몇 부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공부법들은 제가 직접 학창시절 중 관찰하고, 느끼고, 적어가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것들이니 믿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되던 때 이후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법과 계속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왔습니다.

저는 보통, 공부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면 합격수기나 공부법 관련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다시 열정이 불타올랐고, 그렇게 계속해서 공부법 책들을 계속 사서 읽다보니 시중의 모든 공부법 책들을 모두 다 읽어버렸습니다. 읽었던 책들을 다시 보면 열정이 생겨나지 않아, 저는 인터넷에서 공부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서 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다보니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들에는 공통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터넷의 공부법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책에 써있는 것과 실제 공부는 다른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책에는 너무나도 피상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집중 하라.. 계획을 짜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우리가 이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용성은 알고는 있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굳은 각오와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 특히나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고 다른것도 할 일이 많은 우리들이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기분 다르듯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에 공부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상위권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실제 생활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부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부법 책들의 공통된 '원칙'들도 포함시키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탄생한

것이 '바른 공부법' 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 남에게 제가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고, 남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행복해지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의 공부법을 읽고, 다른 사람이 고마워하고 발전하는 모습만 본다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공부법을 쓰는 데에는 상업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이 글은 크게 4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공부에 관한 기본적인 마인드
- 2.구체적 환경에 관한 조언-잠, 친구, 수업 등등...
- 3.수능 공부법
- 4.내신 공부법 (->짧습니다)

각 파트는 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순서는 어느 것부터 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공부의 기본적인 마인드

원래 공부라는 것은 책을 펴고 읽고 학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와 도교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 불교나 도교에서는 수련하는 것도 공부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공부'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살아가는 것, 배우는 것, 수련하는 것,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첫 번째 파트는 학습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파트입니다.

공부에는 공부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적인 측면은 단순지식을 의미하고, 외적인 측면은 문제를 푸는 자세, 몸의 컨디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내적인 측면만을 실력으로 인정하려 하지만 진정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외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성장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천천히 성장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마인드라는 측면은 공부의 외적인 측면에 해당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전교 1등과 하위권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1)아는 것을 안다고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곧 지식이다

공자의 말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많이 낯설죠?

윗말은 구체적 의미는 많은 의미로 파생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고 신나게 동그라미 엑스 치기에 바쁩니다. 엑스 치는것도 어쩔때는 '실수'라 생각하고 어설픈 세모표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찍어서 맞은 것은 아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답만 맞춘 것은 맞춘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항상 내용과 기본을 학습하는 데에 중점을 두세요.

영어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이 나와도 해석이 되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유형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만 관심을 가지지, 해석하는 것에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인이 수능 유형을 모른다고 해도, 역대 최고난이도의 외국어 영역 문제를 주더라도 최소 95점 이상은 맞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언어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이해를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문제를 보고 답을 억지

로 끼어 맞추는 것은 잠시 는 문제를 맞아서 기쁠수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실력의 후퇴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후에 이러한 실력이 뒷받침이 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말에 내포되어 있는 다른 뜻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도, 몇 달후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수능 때까지 그 기억이 다 못갑니다.

그래서 항상 배울 때는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만 합니다. 아는 것이라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해서 확인하고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확실히 안다는 것이라 생각될지라도 100일이 지나고 , 그리고 수능이 다가오면 망각해버립니다.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알고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반복학습'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고 맞추려고 하지말고, 기본을 다시보고 다시보고 또 다시보세요.

이제는 수능이 양치기가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 최소 모든 책은 7번은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학습을 해보면, 계속해서 또다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반복학습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7번은 해야지 겨우 그 책의 내용을 대충이나마 '몸과 마음이'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 '아는 것'이 됩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말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나를 뛰어넘어라-양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란, 어떤 행위를 할수록 그 행위의 결과가 또다시 원인을 부추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하게 되고, 잠은 잘수록 더하게 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다들 이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쌓였다...

오늘만 놀고 "다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신나게 논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신나게 다시 놀니다 -_-;

놀면서 가지는 생각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절대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놀니다.

놀고 놀고 결코 마지막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은 습관이라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특히나 공부- 양성피드백적 시스템을 가집니다.

피드백이란 것은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원인이 다시 결과가 되고, 다시 그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피드백 작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 는 음성 피드백이고, 하나 는 양성 피드백입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 하고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것을 양성 피드백이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논다는 것의 결과가 다시 노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놀게 되면, 그래서 더욱 더 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의 결과가 다시 공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때론 싫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오면 공부하는 마음은 저리가고 인간이기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양성피드백 시스템에 의해, 그러한 유혹을 한번 이겨내게 되면 더욱더 인내심이 강해지고, 공부가 더 재밌어집니다.

한번 제대로 놀게 되면(이것은 recreation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흐름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 흐름을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 경험으로는 따지자면 최소한 1달 이상이 걸립니다.

보통 유혹은 3번정도 옵니다. 갈수록 유혹은 점차 강해지지만, 그 3번째를 마침내 이겨내면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습관이 그렇습니다.

나를 뛰어넘어라는 바로 이런 점에서 쓴 말입니다.

공부를 할때, 9시까지 하기로했다, 그러면 한단계 뛰어넘어서 9시 30분까지,

오늘 30쪽까지 하기로했다, 그러면 한단계 뛰어넘어서 31쪽까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서 '몸'이 조금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자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양성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서 우리 대뇌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과 비슷한 뜻인 것 같습니다.

(3)반성하라-일기와 계획으로 자신을 제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쉽게 나태해 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의욕을 잃고 초심을 잃습니다.

수험생이 아닌 사람은 이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중의 공부법 책들은 그저 '이상'만 말할 뿐입니다.

이러한 나태해진 자신을 제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위에서 말한 꾸준함, 그리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해나가고 제어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1.학습 계획과

2.프랭클린식 일기입니다.

계획을 짜고, 프랭클린식 일기-자신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통한다면 자신을 계속해서 제어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프랭클린 자신도 자신이 50년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자신만의 계획과 일기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세요. 두꺼운 노트를 사길 추천합니다.

이 노트는 '일기'와 '자신만의 요약', 그리고 계획표가 있을 노트입니다.

그 노트에 일기를 써나가고, 계획을 적어나가고, 자신을 제어하고 발전시키는 많은 것 들을 담으세요. (그 노트에 각 과목의 핵심적인 요약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일기'는 죽비의 성질을 지녀야 합니다.

죽비라는 것은, 스님들이 절에서 도를 닦을 때,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때리는 일종의 몽둥이입니다. '죽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과 그에 대한 반성을 적어 자신을 유지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는 공부는 커다란 숲에서 앞의 나무만 보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이 있어야만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큰 숲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은 대충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계획을 손으로 짜고 실행해본 사람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조하면서도 짜고 실천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도 모르며, 짠다 하더라도 계획을 무슨 대단한 것인양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실행을 못해 밀려버린다면 계획을 던져버리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계획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획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능까지 남은 기간을 4주단위(약 한달)로 나누어 각 단위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주에 각각 주계획을 정했고, 각 주를 5일로 나누어서 각각의 할일을 정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저의 계획표를 예로 들어서 올려놨는데...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프랭클린식 표시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세요.(중요!!)

이것도 첨부파일에 올렸는데, 자신의 집중도와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하고싶은데 참아야만 하는 상황.

그렇다고 참기는 힘든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하다보면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고있는 사람만이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구를 많이 쓰네요)

전 이 노트 뒷면에 '하고싶은 일' 란을 만들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날 잡아서 그날에 하고싶은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물론 다는 못하겠죠 ^^)

매일 조금씩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띄는 것보다는 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Recreation 으로서의 휴식입니다. 전략적 휴식이고, 재충전입니다.

기다림은 행복합니다. 놀 날을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그 설렘~~~!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때때론 의욕만 앞서곤 합니다. 의욕만 앞서서 어려운 책을 몇권씩 보다가 결국 소화해내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안나오니 마음이 급해서 밤을 새곤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컨디션을 완전히 망치게 되고, 악순환은 되풀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제가 학교다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항상 다리를 떨고 산만하게 했는데, 공부량 하나만큼은 끝내줬습니다.

잠 4시간 자고, 학교와서 12시까지 자습하고....많은 아이들은 그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신은 그게 멋있다 느꼈는지, 선생님, 친구들에게 "어젠 밤샘다....몇시간 잤다....어젠 문제집 몇권 풀었다" 이런것들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엘리트라 인정받고 싶었는지, 공부 잘하는 애들과 무조건 친해지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참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많이하는 공부로 인정을 받으려 했고, 몇몇 친구들은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학기초에 엄청난 양치기로 3월달에 50점대였던 수리영역을 4월달에 90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그 뒤로는 계속 언제나 모의고사 400점 초반대의 점수를 유지했고, 결국 수능도 모의고사와 비슷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바라시던 의대는 꿈도 못꾸고, 결국 항공대로 진학하고 말았습니다.

(항공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가 투자한 공부의 양에 비해선 결과가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는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집과 문제들을 풀고, 잠을 조금 자면서 공부하는 것이 또래의 친구들에겐 멋있어 보이고 당시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맛있는 것은, 오버페이스를 안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생활을 해나가며, 적절한 수면을 취하면서, 쉬운 문제를 무게있게 여러번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정으로 보아서는 별로일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보면 진정으로 인정받는 길입니다.

계획은 자기 의지대로 계속해서 규칙적인 생활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은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보여도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 즐겁게 생활하라

즐겁게 공부하세요.

학습이라는 것은 원래 즐거운 것입니다.

공부가 즐겁지 않다면 역사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존재했을까요?

단지 명예욕을 위해서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며 그것들은 남과 토론하는 그 '공부하는' 재미는 독자적인, 독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우리들을 시험이라는 점수체제로 압박하고, 부모님들도 또한 압박하여서 우리는 그 공부라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싫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공부가 정말 재미없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는 재밌습니다. 단지, 시작하기가 싫고,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일단 공부를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시작하기 싫어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술술 잘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공부는 재밌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시험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즐겁게-긍정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허탈해 합니다. 자기 세상이 올 줄 알았다지만, 막상 그들이 맞는 현실은 허무입니다. 수능 전에 하는 게임은 한판 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었는데, 수능이 끝나니 갖가지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고싶던 노래방도 수능이 끝나고 가니 뭔가 허전함이 많고 흥이 안난다 합니다. 이것은 점수가 잘 나온 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이상세계는 미래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현재이고 우리는 그 현재를 충실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보다 나은 '미래'의 '현재' 위해서이고,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보상'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즐겁게 생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의 태도는 많은 것에 영향을 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지금 힘들다고 느끼고, 빨리 이 생활에서 벗어났으면 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긍정적으로, 즐겁게 생활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느님이 만드신 함정은 벗어날 수 있어도, 자신이 만든 함정은 벗어날 수 없다 했습니다. 자신은 쪼다고,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자신을 제한해버리고 암울하게 살아간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은 발전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시험을 못볼것이라 생각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수 있으며, 그 한계는 누구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계를 지정한 건 자신일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5)나에게서 구하라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무한의 고독과 맞서며 싸워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능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지금일수도 있으며, 수능을 위해서 공부해나가는 과정일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친구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길을 가게 유지해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자신을 아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그리고 사는 법도 마찬가지로지만, 모든 것은 가고 가고 행하는 도중에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충고나 지도도 좋은 역할을 해줄 수는 있으나, 결국 자신이 깨달으려면 직접 체험해보고 실패도 해보아야만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적게 해본 사람은 진정한 실패를 맞이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것은 실패하고, 착오를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게서 구하라.

내 밖에서는 좁쌀 하나의 공도 이룰 수 없다.

내 안에 대천세계도 있고 억만년 세월도 있다.

내게서 구하라.

-봉우 권태훈-

(6) "적당히" 라는 생각은 갖지말라.

적당히 하면 항상 2% 부족합니다.

공부를 할 때, 완벽히 하면 손해보고, 적당히 해서 겨우 턱걸이를 걸칠 정도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최후에 가면 항상 조금이 부족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주 조금의 차이로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에도 전력을 다하듯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한 친구는,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대충보지 않았습니

다.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고 해도 (꼭지시험같은..), 항상 다시보고 다시봐서 완벽히 알아 100점을 맞을 정도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많은 과목을 대충 1등급을 맞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고, 그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완벽함을 가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며, 적당히 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자신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 상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몸이 조금 피로울 뿐이지, 미래에 가서 힘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래에 가서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기억은 나중에 있을 큰 벽을 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구체적 환경에 관한 조언

우리는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며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자신만의 자습을 합니

다. 자습을 안하는 날은 학원을 가기도 하구요. 때론 놀기도 합니다. 집에가서 밤이 되면 잠을 자구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지요.

저는 이런 친구,선생님,잠,수업,자습,놀이,학원 등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공부만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대학입시'라는 것을 위해서 현실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우리 사회는 규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실-이고, 바로 '지금'을 우리는 즐겁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Carpe diem!!!!

서클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회도 나가보세요. 전 고등학교 시절 때 교지편집부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학교에 반항도 해보고 (전 두발 자유화 운동을 했었습니다-물론 실패) 가끔 야자도 뛰어서 피시방도 가보고 친구집에서 밤도 새보고 술도 몰래 먹어보고 (담배는 피지마셈)이성친구도 사귀어보고 깨져도 보고...어떤 날은 밤을 새서 공부도 해보고 ...

그렇게 즐겁게 생활해야 합니다. 물론, 본분인 공부를 완전히 잊어서는 안되겠죠. (참고로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자신을 유지하는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꿈을 가지도록 하세요..

(1)친구-Friend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인생에서 보면 어찌면 명문대 간판보다 소중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철왕 카네기는 '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이 끝내주게 좋아서 말 그대로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면 공부도 정말 안됩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참 다양각색입니다.

-이기적인 친구, 농구 잘하는 친구, 키 큰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싸움 잘하는 친구, 게임 잘하는 친구, 잘난척하는 친구, 착한 친구, 소심한 친구 등등...

항상 같이있고 싶은 친구도 있지만, 너무나도 맘에 안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가리고 사귀어선 안됩니다. 너무나도 싫은 친구도 있지만, 계속 사귀고 나아가다 보면 괜찮은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항상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험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험담은 누워서 침을 뱉는 격입니다. 결국 자기에게 자기가 한 험담은 그대로, 어찌면 몇 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도 험담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칭찬을 해주게 되면,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싫은 이 친구가, 나중에는 어떤 일로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엮어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인 것처럼 항상 잘해주세요.

인사를 잘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인사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먼저 인사를 하세요. 인사만 잘하더라도 친구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무시해선 안됩니다.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줘야 합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받고싶은 대우만큼 친구에게 행해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의 말이 터무니없고 거짓말일지라도, 잘난척과 자만심이 섞여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를 부정하고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종교에서도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큰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세요. 자신이 말을 하고싶은 마음은 잘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그래도 상

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어야 합니다. 말을 끊고 싶어도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는건 매우 큰 비매너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빛은 속일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수업과 선생님

다음은 수업과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수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모든 공부법 전문가들도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업은 전체 공부시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위 0.1%의 학생들 중 82%가 학교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못가르치는,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시더라도, 그 과목에서만큼은 학생들보다 뛰어납니다. (아닌 선생님들도 아주 가끔 있을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선생님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과목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선생님의 실력이나 가르치는 정도가 좌우하는 역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과, 평범한 학교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차이를 크게 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선생님을 얼마나 믿고 따르냐. 이것이 바로 학습에서 성취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을 들을 때에는 자신이 아는 내용이라도, '반복학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새겨듣는다'라고 생각하며 집중해서 듣고 필기하세요. 수업은 내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상위권 학생들중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그 수업을 듣는 것보다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푼다거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강의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각 과목마다 유명한 선생님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모든 강의를 듣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 1.쉽게 이해되게 가르치시고
- 2.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 3.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인생에 도움이 될 말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바로 좋은 선생님입니다..

(3)자습

다음은 자습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자습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지만 자습이 전 공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의 고독 속에서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는 바로 '자습'이 공부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수업시간에 뭔가를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억은 하루, 많아야 일주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습입니다.

자습을 할 때, 먼저 숙지해야 할 점은 바로 집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공부했냐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집중을 했냐입니다. 대중 읽은 지식은 모두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만 지식이 자신의 것이 되고,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길어보이는 자습시간도, 자신의 목표와 비교해 볼 때, 그 목표를 성취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시간입니다.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천천히 하다가는 수능 때와서 '내가 뭐했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집중을 해야합니다.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하나? 바로 지금 수능문제를 풀 듯, 이 내용이 곧바로 수능에 나오듯이 집중을 해야합니다.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시간에 건들건들 글자만 읽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수능에 나오는 것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읽을 것입니다. 벼랑끝에서 나뭇가지 하나 잡고 매달려 있는 기분으로 집중하세요. 집중하는 것은 실제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수학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음악을 듣게 된다면 단순계산력에는 상관없이 없지만, 고도의 사고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하면 웬지 잘되는 것 같지만,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깊은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한번에 한가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집중해서 하려면...)

수능에는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음악을 들으며 공부해서는 안됩니다. 저도 그 시간에 음악을 듣고싶은 욕망을 압니다 --; 하지만, 그것을 참았다가 쉬는 시간에 들으면 기쁨은 두배가 됩니다. 쿨럭;;

그리고, 삶의 태도는 바로 성적에 직결됩니다. 산만한 학생은 덤병되어 실수를 자주 합니다.

차분한 학생은 문제를 풀어도 그리 실수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다리를 떨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산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서 글을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세요. 빨리 안읽어도 됩니다. 빨리 문제를 풀고 빨리 읽는 연습은 수능이 다가와서 2~3달 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신, 수능은 읽기 중심이기 때문에 정확히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또한, 전에도 말했지만, 자습할 때는 항상 반복학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죠. 공부한 것은 한달만 지나도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남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공부...수능때 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지식으로 남아있고 몸에 익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남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아주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하죠. 한 수업시간마다 하나의 개념만 제대로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도 수능때까지 공부를 모두 마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실도 보고 또 보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체득시켜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최소 7번을 [정독]해야지 책의 내용이 겨우 자신의 것으로 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7번입니다. 그래야지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고 목차가 보이고 내용이 보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보입니다. 반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전 이것이 우등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책들을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권의 책만 계속해서 파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성적을 올리기에도 가장 쉽습니다. 의욕만 앞서서 7권의 책을 한번 보는 것보다, 1권의 책을 7번 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복습이 중요한지 예습이 중요한지 말을 안해도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대개 선생님들은 '복습'을 강조하고, 공부법 전문가들은 대개 '예습'을 강조합니다.

전 무엇이 더 중요하나 물으면, 둘다 중요하지만 복습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습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이해도 높게 듣는데 필요한 것이고, 복습은 자기것으로 완벽히 만드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습으로 인한 충격효과 등으로 기억이 더 오래가게 할수 있으나, 결국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을 할 때에는 그냥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눈으로 훑어보는게 그치지 않고, 다시한번 손으로 써보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며 호기심을 가지며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로 복습을 해야되나면, 그날 배운 내용을 흰 백지에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야합니다.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정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습의 범위는 처음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첫째날에 1을 배웠으면 1을

둘째날에 2를 배웠으면 1,2를

N번째 날에 N을 배웠으면 1~N까지 학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반복 학습으로 앞 범위의 단원을 공부하는 데에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비슷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간 기억력의 망각곡선에 따르면, 오늘 1시간 들여서 10의 내용을 공부했다 가정하면은, 내일 그 시간에는 2~3의 내용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0.8이 되고, 그 다음날은 거의 사라집니다. (평범한 사람들 기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겁니다. '전 어렸을 때 했던 것 다 기억나는데요?'

그것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충격효과입니다.

이 충격효과는 예습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생합니다. 예습을 하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수업시간에 들으면 그 충격으로 내용이 기억 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충격효과를 받아서 기억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그 다음날 다시 어제 공부했었던 것을 공부한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1/4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각의 경사도가 조금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어제 공부했던 것을 공부하는 데에는, 1/16 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제는 망각곡선이 더욱 완만해집니다.

이러한 망각곡선의 이론을 활용한다면,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론적으로는 4/3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이 걸리겠죠.) 복습은 하면 할수록 시간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책의 전체 윤곽이 머릿속에 잡히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공책 1페이지에 책의 중요 내용을 줄줄이 쓰는 경지까지 말입니다.

복습을 할 때에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근원을 탐구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말하기를 철학은 궁금증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학식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차이는, 우리의 궁금증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피상적인 답변을 보는 데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궁금증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나아가느냐.

복습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눈으로 쪽 훑어봐서는 나중엔 남는게 없습니다.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근원을 탐구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들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자신이 직접 땅을 일구어서 재배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을 직접 써가면서 해보고, 과학의 실험들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는 등...계속해서 탐구하고 알고싶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중요시하며 반복해서 보세요. 교과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수능공부편에서 다룰 것입니다.

(4)놀이

다음은 놀이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하지만 실제로 매일 놀기도 합니다. 어떻게 노느냐는 사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학창시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다보면, 자신이 노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태해지려는 경향이 있고 계속해서 쾌락을 좇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놀 때에는 항상 '현실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완전히 다 잊고 그냥 놀자!! 이러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곧바로 집에가서 공부해야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중독성 있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싸이월드,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등...자신의 시간을 뺏는다 싶은 것들은 꿈을 위해 과감히 끊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3번의 유혹만 견디고 나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에 리니지를 했었는데, 그냥 아이템을 친구에게 다 쥐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정으로 자유로워 지더군요. -무소유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ㅎㅎ)

공부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자신에게 유익한 놀이를 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분야가 각자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농구와 축구를 했습니다. 저녁식사시간이 끝나고 친구들과하고 재빨리 나가서 약 30분동안 농구를 했었고, 매일 체육시간만을 기다리며 체육시간이 되면 신나게 축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유쾌한 추억이었고, 그것이 저의 고3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고싶지만 놀지 말아야 할 순간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공책에 적어두었다가, 하루 날 잡아서 놀기를 추천합니다.

(5)잠-HAVE A GOOD NIGHT!

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잠은 간단합니다. 오늘 자서 내일 일어나세요.

12시 이전에 자서 그 이후에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7시간 이상을 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11시에 자서 6시반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는 한의학에서도 강조하는 시간이고...성장호르몬도 많이 분비되기에)

어설픈게 공부 1시간 더 하는 것보다는 미리 자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컴퓨터나 tv를 보지 마시고, 차나 커피등 카페인 들어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자기 2시간 전에는 물 이외에는 아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의 유혹이 엄청 크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그냥 생각없이 자버리면 다음날 그냥 잊어버리더라구요. 안먹고 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잘때는 어설픈게 자면 안됩니다. 완벽하게 잘 준비를 하고, 오늘일어났던 일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일의 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세요. 내일이 수능시험일이더라도 그냥 자버리세요.

'현실의 끈'을 놓아버리면 됩니다. 아예 다 잊어버리고 자면 됩니다. 그 시간에 고민해서 이득보는건 없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꼭 자세요. 점심시간 때 자는 20분은 밤에 1시간 30분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점심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엄청나게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40분 이상은 자지 마세요. 생활 리듬이 바뀌어버립니다.

(6)학원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 1~2개를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안 다니는 친구도 당연히 있구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학원입니다.

어떤 학원을 다녀야 좋을까...수업은 어떻게 흡수해야 할까.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 시간은 언제쯤 하고, 복습이나 연습 정도는 어느정도로 할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학원은 학기 중에는 1~2개,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안한다면 3~4 개지가 최대 최적화였습니다.

학원은 많이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하기 힘듭니다.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은 수업을 듣는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에서의 '학'에는 해당되지만, '습'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시간이 필요한데, 학원을 3개 이상 다니면 이것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많아야 2개정도 (종합반은 비추입니다.)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은 당연히, 보충해야 할 과목이나 계속해서 꾸준히 학습해야 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은 가까운 학원, 또는 교통편이 편한 학원을 추천합니다.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동시간 때문에 공부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대개 30~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는 왕복 1~2시간, 그리고 외출준비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합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 이동시간이 적게 걸리는 학원에 다니길 추천합니다.

흔히 명강사의 강의를 들으러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왕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지만, 그 시간에 자기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냐는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 선생님을 믿고 따르냐가 공부의 성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가르치고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연습과 복습을 열심히 한다면 명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 못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과목에 따라 효율은 좀 다릅니다.)

학원을 다닐 때에는,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길 추천합니다. 그 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대로,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수업을 소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영어교재를 공부하는 것은, 시간과 집중력이 분산되고 계획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만 반복복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최적의 효과입니다. 자신이 직접 짜는 계획도 좋지만, 때로는 계획을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직접 짜는 계획은 학원의 숙제나 수업 소화를 위한 공부의 시간을 조절하는 것 중심으로 하고, 전적인 커리큘럼은 학원에 맡기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그 방면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최적의 커리큘럼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교주를 신봉하듯이, 그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숙제해오고 학습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수업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믿고 따라야지 집중력이 생기고, 수업 이해도 빠릅니다. 물론, 가릴 것은 가려야 겠지요.

3.수능공부법

수능의 모든 영역은 언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능은 읽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수리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부할 때에는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천천히 뜻과 질문의도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문제에 나오는 용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어도 소홀히 봐서는 안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말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자격이 있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의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고, 대학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알고있나....참고로, 수능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수능에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접근방법이 틀렸고 문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능 시험범위 내에서만 공부해야 합니다. 다른 범위를 공부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 해석 방향을 그르치게 할수도 있습니다.

명문 학원의 강사들도 이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수능 시험범위와 출제 성향과 알맞은 문제들을 반복 복습하라..."(특히 강남대성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일부러 어려운 개념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문제집을 풀 필요도 없습니다. 하이탑 보고, 실력 정석 보고, 어려운 책들 보고.. 물론 그런 책을 다 보아서 소화한다면 좋지만, 범위가 많고 내용이 어려우면 잊어버리기 쉽고, 반복 복습을 여러번 하기도 힘듭니다. (자신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세요. 정말 잘 잊어먹는답니다.)

수능에 가장 알맞은 책은 교과서와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수많은 공부법 관련 책들도, 입시전문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가장 쉽고 정제된 문장을 사용합니다. 인과관계도 뚜렷하고, 개념 설명도 부드럽습니다. 교과서가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능의 모든 문제는 교과서를 토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들은 교과서만을 참고로 해서 냅니다. 다른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걸러냅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 수능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실 것입니다.

평가원에서도 수능 기출문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5 학년도 수능에서도 아주 다수의 기출문제들이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출제된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수능 문제 하나 하나는 수십명의 교수님들이 몇일간 합숙하면서 만든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들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제거된 명쾌한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출제경향이 어떤지, 어떤 것을 주로 묻는지 분석하세요. 특히나 2002 ~ 2005 학년도의 수능 기출문제들이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은 문제를 틀렸다면, '아~ 실수했어!' 하고서는 틀린 것은 실력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실수도 실력입니다. 아니, 실수가 실력입니다.

자신이 착각한 것입니다. 착각한 것은 공부를 할 때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고, 문제를 풀 때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줄이려는 것은 단기간에 안됩니다. 이것은 공부의 '외적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쌓아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 1% 이내의 학생들은 그 밑의 학생들보다 실수를 적게 합니다. 그들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요인은,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에도 있지만, 실수를 적게하는 요인이 큼니다.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시간을 들여서 읽으세요. 한 문제 한 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읽고, 수능보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이나 실험과정 같은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대충 읽어도 될지 몰라도, 수능은 다릅니다.

보도 듣도 못한 유형이 나오고, 처음 보는 실험과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문형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문제도 매우 길고, 제시문도 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

인가? 조건은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유형으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2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가끔 1등급도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기는 힘듭니다. 수능 때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교수님이 이러한 유형학습법에 대해서 함정을 미리 파놓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유형으로 학습하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공부하는 것은 수능이 쉬울 때만 통합니다. (2000, 2001 년도 수준...)

수능이 어려워지면 처음 보는 유형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능은 기본을 중시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수능영역 공부법은 과목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언어, 외국어영역////////수리, 사과탐 영역

각각의 경우는 거의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1)언어, 외국어 영역 공부법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지문 이해를 우선시하기 바랍니다.

지문이 이해된다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몇몇 지문이해를 선행하고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은 수능을 앞두고 약 100일전 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외국어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이 과목들은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손을 놓게 되면 실력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매일 일정량,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 외국어, 언어영역 고득점의 비밀입니다.

외국어 영역

외국어 영역은 학생들이 유형 위주로 공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해석할줄만 알면 어떠한 유형들이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형에 대한 풀이법으로 -이른바 뽀록- 맞추는 문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주제는 맨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라..

그리고 그러한 학습으로 공부한다면, 바로 앞에 있는 수능은 잘 본다 할지라도(잘 보기도 힘들겠지만..)

대학을 가고 또 다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데에서 막히게 됩니다.

기본을 중시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외국 중학생에게 수능 시험지를 갖다주면 몇점 나올까요?

거의 다맞을 겁니다.

외국어 영역은 해석만 된다면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외국어 영역이 한글로 되어 있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바로 문장을 해석(이것은 번역과는 의미가 다릅니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어는 선생님이 따라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과목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공부하느냐에 따라 성취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전 "해석이론"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영어를 배웠던 박상준이라는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책인데, 시중에 곧 출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8월에 beneschola.com을 연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 알바 아닙니다 -_-;;; 단지 제가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학원강사 중에서, 박상준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현대 언어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선생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메가스터디의 김기훈 선생님의 강의는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 박상준 선생님은 정말 김기훈 선생님 못지않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1년동안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전 고2 때까지 죽어라고 영어만 했던 놈입니다. 책 한권을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성문 종합영어를 보고, 맨투맨 종합영어 5권을 모두보고, 누드교과서도 봐보고 -_-;,,잘나간다는 선생님들의 과외도 받아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볼건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항상 100% 대에 있어도, 완벽한 절대실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3 때 박상준 선생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미국 본토의 현대 문법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로, 영어 문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나올 문법들은,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성문류의 100년된 언어학을 싸그리 바꿀 획기적인 문법들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그 책에 대한 학습이 된 상태에서 그 책의 문장구조 표시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2주일 안에 영어 문법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이상의 수준은 몰라도, 고등학교 범위정도 안에서 나오는 문장들의 구조가 그냥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문장구조 표시는 정말 평생 써먹을 표시입니다.

그리고 어휘는 한번보고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를 물으면 1초안에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완전히 익을 정도로 반복학습을 하세요. 평생 써먹을 단어들이입니다.

단어장은 어느정도 수준이 된다면 '수능 영단어 여기에 다 있다'를 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책에서 수능에서 나오는 영단어가 거의 다 나옵니다. (2002~2005 학년도 수능 평균 99% 적중)

물론 양은 조금 많습니다만; 수능 외국어 영역을 정복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우선순위 영단어나 능률 Voca도 좋습니다.

아무 단어장이나 골라놓고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언어영역

언어영역 공부는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언어영역 또한 어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문제에서의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다고 생각되는 어휘도 실제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조, 정조, 정서, 심상, 병치..등등..

이것들은 일본식 한자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어휘는 대개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러기에 사전을 찾는것을 추천합니다.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사전을 찾고,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고...

시중에 언어어휘 단어장이 나와있는게 있긴 한데, 그것의 효용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찾는 작업을 1달만 하면 평균점수가 5점정도 오를 것입니다.

(문제의 의도를 몰라서 틀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전을 사랑합시다!!!

문학을 공부할 때는, 화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세요.

고전문학은 나올 작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많은 양처럼 보이지만, 고전문학에 관한 책을 하루에 2~3지문씩만 해도 6개월 내에 웬만한 작품들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은 특이한 주제가 없습니다. 정형화된 주제가 대부분이죠.

또한 전개과정, 표현기법도 현대문학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진이의 시조같은 특별한 경우만 몇 개를 외어둔다면 좋습니다.

고전문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석과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알고, 그 글의 인물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고전문학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초반에는 점수가 잘 안나오다가, 후반에 가면 거의 다 맞게되는 것이 고전문학입니다.

그러나 고전소설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보는 소설들(규장각에서 빼내오는...)이 있습니다.

이 소설들은 고어체로 쓰여있지 않고, 현대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설령 어려운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주석으로 달아 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특징들, 서술자의 개입이나 권선징악 같은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시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보이는 것뿐이죠. 시에서는 내재적 의미에 주력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시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같은 것들은, 수능 문제 위에 보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낯설고 생소한 시일수록, 그런 보기가 지문에 있습니다. 한번 수능 언어영역-시파트를 쭉 보시면 그러한 이상한 (?) 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튼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능은 우리가 100% 시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표현기법은 어떠한지 그러한 것들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을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는 생략된 문장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내용위주로) 시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닙니다.

현대소설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학사적 의의에 따라 중요한 소설 리스트를 만들어도, 최근 수능에 출제된 현대소설은 대부분 그 리스트중 하위에 있는 리스트 들입니다. 수능은 우리가 처음 보는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는 소설 위주보다는, 낯선 소설 위주로 지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낯선 소설을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약 20지문정도 공부를 해보면 낯선 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비문학은 말 그대로 비문학입니다.

모든 문제는 지문 내에서 답이 나옵니다.

창의적 추론과정도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답으로 연결됩니다.

비문학을 공부할 때에는, 각 단락의 요지를 찾고 전체 주제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술방식이 어떤가'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문학 또한 많은 연습이 요구됩니다. 그냥 문제를 풀어서는 안되고,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나 외국어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항상 어떠한 글에는 대립요소가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되는 글이 나왔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글에는 보통 A가 있으면 B가 있는데, 이것들은 글이 전개되어 가면서 A'과 B'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잘 알아차려 흐름을 잘 파악하면 글을 읽는데 한층 더 수월해 집니다.

바로 대립이미지를 찾는 것입니다.

흔한 인문제재의 글을 예로 들자면, 처음에는 '물질'과 '정신'의 이름으로 중심 소재가 나왔다가, 이것은 '과학'과 '종교'의 이름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물질과 과학이 한 묶음이고, 정신과 종교가 한 묶음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두드러집니다.

이 개념들은 모두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직접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 지문들을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수리영역, 사과탐영역

전 많은 선생님들의 수리영역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도 많이 봤구요.

수리 영역은 박승동 선생님이 말하시는 공부법이 가장 수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리영역을 공식만 가지고 풀려 합니다.

먼저 말해둘 것은, 수능에서의 수리영역은 수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학은 수와 식의 나열로 된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수리영역은 언어로 서술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포함하고, 개념을 묻는 문제 위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부방법도 수학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과탐 영역과 같이 내용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재는 교과서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과서가 쉽다고 무시하는데, 쉬운 문제를 무게있게 풀어야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3~5분안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서 답이 안나오는 것이지,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3분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출제위원들이 유일하게 참고하는 참고서입니다.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능을 냅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절대 내려고 하지 않겠죠. 모두 검토해서 배제합니다. 그리고 시중의 문제집에서 문제를 낸다면, 이미 유형화되서 대부분의 학생이 아는 것들을 중심으로 냅니다. 변별력 높은 문제는 교과서의 내용과 도표, 그래프, 사진과 소재를 토대로 해서 냅니다.

교과서 학습은 문제를 풀고, 단원종료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정독이 전제된 개념학습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네모박스 쳐있는 공식만 보고, 단원문제 다 풀고 '교과서 끝냈다~ 너무 쉬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볼 때에는, 먼저 목차를 읽고,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단원 앞의 배경설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목표를 읽습니다. 학습목표가 수능 1문제입니다. 이러한 학습목표가 여러개 합쳐져서 나오는 것들이 수능에서의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설명전에 있는 탐구활동을 꼭 하세요. 7차교육과정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체계이기 때문에 탐구활동만하게 자기주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자기가 해보세요. 그리고 자습서의 답은 절대 보지 마세요.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을때에는 한글자 한글자를 정독해보세요. 그 용어들을 수능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제의 풀이과정을 세심하게 보세요. 예제의 풀이과정은 가장 정제된 풀이과정입니다. 수능의 문제들은 교과서 예제수준입니다.

정석같은 책도 좋은 참고서이기는 하지만, 수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보고, 반복학습한다면, 똑같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정석을 계속해서 풀고 계시다면, 과정을 변경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문제만 엄청 풀어대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제는 학교에서 나가는 문제집이나 시중의 문제집 한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집의 80%는 대개 다 같은 유형입니다. 이 문제들만 계속해서 반복학습한다면 수능 대비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의 수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는 문제집이나 자신이 푸는 문제집의 전체 문제들,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만 합해도 몇백문제는 됩니다. 상당수가 겹칠것이지만, 그 문제들만 제대로 소화한다면 수리영역은 그리 어려운 관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탐과탐

사과탐도 수학공부와 똑같이 교과서 위주로 하세요. 사탐은 역사질 자료들, 과탐은 실험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사과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잘나오고, 실수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많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사과탐은 항상 실수를 줄이고 정확히 읽는 데에 신경을 쓰세요. 실수로 한문제 틀리면 3등급까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4.내신공부법

요즘 수시 전형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신의 비중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만 올인을 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구요.

내신같이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고3때 정도 와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1학년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교1등을 할 수 있을텐데....

하고 말합니다.

출제되는 형식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물론 특목고는 예외입니다;;;)

저는 중3 마지막 시험 평균 67.xx를 받았습니다. 전교석차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고등학교 첫시험에서 평균 95.9, 전체석차 26/600을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첫시험에서는 평균 98.7 전체석차 3/600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첫시험때는 매일 내신만 공부했고, 고3 시험때는 3일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 내신 고득점의 '비결'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전교 내신 상위권 애들을 줄곧 관찰(?)해왔고, 저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 고득점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걸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내신하면 굉장히 어렵고 이상한 문제가 나올것으로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사서 막 풀고 는 하죠.

하지만, 제가 전교 1등을 줄곧 하는 애들을 관찰해온 결과

솔직히 내신은 별거 없습니다.;;;;;

학교 수업 그 시간에만 충실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때가서 벼락치기 하면 됩니다 .

-_-;

수업을 들을 때에는 아는 것이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필기하세요. 안다고 안적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되고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필기를 안해놓으면, 시험 때가서 볼 것이 없는 사태가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내신은 바로 선생님한테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시더라도, 아마 다른반의 불균등을 막기 위해 문제를 찍어줄겁니다. 선생님이 나가는 교재와 프린트로만 공부하세요. 다른 문제집을 사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문제집을 사려 한다면, 한권만 사서 계속 반복학습하세요.

내신 수업 시간에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세요. 그 시간에 배운건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공부 안하겠다는 신념으로 수업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며, 내신 시험을 공부할때도 편하고 시험을 볼때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한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은 벼락치기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고등학교때는 벼락치기 안통한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벼락치기하고, 중하위권 학생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꾸준히 준비하면야 좋지만 우리에게는 수능도 있지 않습니까?

내신시험은 3학년은 3일정도부터 시작하는게 좋고... 1,2학년때는 2~3주일정도부터 넉넉하게 놓고 시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벼락치기에는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컨디션 관리도 필요없습니다. 닥치고 암기입니다. (잠은 조금자도 됩니다)

전 물리2도 아예 다 외어버렸습니다. ;;;

영어같은 경우는 지문을 다 외우면 다맞습니다 -_-;

굳이 안외우더라도 해석이 되고 접속사와 전체흐름만 알고, 그 단원의 주요 문법만 알면 문제가 다 보

입니다.

선생님이 외우란 것만 외우고, 학교 교재만으로 공부하세요. 문제집 사서 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자료를 아예 다 외어버리고, 교과서 내의 문제들 실험결과는 몇 번씩 반복적으로 풀어서 눈을 감아도 눈에 선히 보일 정도로 하세요.

여러 가지 팁들

- 1.아침 10분의 독서를 하라. 학교에서 자습이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독서를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아침 10분의 독서- 라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한다.
내가 직접 해보니,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 2.한 수업당 하나의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성공한다.
이 수업에서는 이것만 알아도 제대로 한다.. 하고서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많은 양을 배워도 곧 다 잊어버린다.
- 3.사람의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기억력은 엄청나게 나쁘다.
자신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반복학습을 하자.
- 4.자신의 실력에 만족하지 마라. 절대 만족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 깊이 알려해야 한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 5.시간을 보지마라.
시간을 보게되면, 계속해서 그 시간에 얽매이게 되고, 그 시간이 다 가기를 기다리게 된다.
시간을 보지말고, 자신의 일을 열정을 다해서 계속하라.
- 6.맞은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지 마라. 자신이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만심도 갖게 된다.
틀린 문제에만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7.자습은 웬만하면 학교에서 하라. 최상위권의 50%가 학교에서 자습을 했다고 한다.
자신을 가장 잘 제어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다.
마치며....
프랑스 한 사관학교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병력, 군량, 전술능력 등 모든것이 똑같은 군대가 있다고 하자. 어떤 군대가 이기겠는가?"
모든 학생들은 이 문제를 이상하게 보고,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학생이 이 문제의 답을 맞췄습니다.
"최후의 5분을 잘 싸우는 자가 이긴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맞춘 학생의 이름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최후의 5분을 잘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내신도, 수능도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후를 잘 싸우지 못하면 결국 싸움은 지게 됩니다.
항상 최후의 5분은 최선을 다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글을 넣는것도 이유가 있겠죠? ^^;
두고두고 기억해 두십시오.

바른공부법2

들어가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 ;

예전에 ‘바른공부법’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때가 2005년 4월이었는데, 벌써 두 차례의 수능이 끝나고 새로운 입시제도가 다가오고 있네요.

예전 그 글에서 저는, 그 글에 내용을 보다 추가, 보강하여 여러분께 다가서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1달 뒤, 그 글의 내용을 보강해서 업데이트를 하였지만, 그 길이가 너무 길어서 한 페이지 안에 본문을 다 기재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글의 양이 길어지게 된다면, 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결국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집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책도 역시 ‘지면’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 집필 내용을 그대로 싣는다면 책 내용은 600페이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앞의 ‘공부법의 마인드 및 방법’까지만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내신, 논술과 관련된 쪽은 지면 문제도 있고, 완성도의 문제도 있어서 결국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제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하여, 저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 못실은 부분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오르비에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을 위한 글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는 상업적, 개인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약간의 보탬이라도 여러분이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입니다.

이 글은 대학으로 가는 길, 수능, 내신, 논술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허나 부족한 점이 아주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과의 논술 관련 부분은, 총체적인 공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팁(Tip)의 가치만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부분은 취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길. 수능, 내신, 논술>

시험! 시험! 시험!!!

좋은 대학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방면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뽑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통해 학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봅니다.

쪽지시험, 실기시험, 수행평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논술, 면접..

아아..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시험 잘보는 원칙, 세가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시험을 잘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런 친구들의 시험 잘보는 원칙 세가지를 여기에 소개합니다.

1.시험공부는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먼저 밥은 먹어두어야죠.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한 컵 마셔줍니다. 손발을 씻고 경건하게 책상위에 앉습니다. 방 안의 불을 끄고 스탠드만 켜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하던 책상정리부터 합니다. 만족할 정도로 책상정리가 되면 이제 책을 펴니다. 표지를 가슴속에 새겨둡니다. 머리말을 차근차근 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한 10페이지 읽다가 밖에 나가서 TV한 프로 봅니다. 또 보다가 침대 위에 눕습니다. ‘줄리다...잠깐 자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지.’ 그리고 다음날 이 찾아옵니다.

다른 경우를 들어볼까요? 이제 시험이 1주밖에 안남았으니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갑니다. 역시 경건하

게 책을 꺼내서 보기 좋게 진열을 합니다. 한 20분 공부를 하다가 친구와 같이 나갑니다. 논리는 이것입니다. “공부는 양으로 하는게 아냐! 효율로 하는거야. 머리를 식히면서 공부해야지!”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잡담을 하다가 들어옵니다. 준비해온 MP3 플레이어를 틀고 공부를 합니다. 어느새 노래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와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1시간정도 뒤에 돌아와서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면 책의 첫페이지부터 경건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가 좀 된다 싶으면 도서관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한 자녀를 반겨줍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005년,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을 차지한 수학교육과 문헌봄씨*평점 4.25 / 만점 4.3) 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공부는 성스럽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책 펴고 공부하십시오. 책상정리 할 시간에 책 한자라도 더 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잠 오면 무조건 자지 말고 웬만하면 참으면서 하세요.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절제해서 자세요. 책 내용만 낭독하지 말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틀린 것은 깊이 반성하고 정확한 답을 적어놓아야 합니다. 시험공부는 치열하게, 현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시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따른 확실한 방법으로 공부한다.

실력이 없고, 시간이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감을 잡는다면 단시간 내에 매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절대적인 실력을 가지면야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국 물리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제 친구도 수능 물리에서는 2문제나 틀리고 말았습니다.

시험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출문제를 우선으로 보고 유형에 따라 공부하십시오. 대학교에서 해당 강좌 교수의 시험문제 족보가 있다면 50%는 먹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방식은 점수만 따르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행위입니다.

3.실전연습은 해봐야 한다.

리허설 없이 무대에 오르는 가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 시험내용을 자기가 확실히 알고있는지 체크하는 자가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전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실전연습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읽기만 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을, 직접 써보거나 풀어보면 막상 쓸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쪽지시험이라도, 직접문제를 내고 답을 손으로 써보는 것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문제집에 있는 문제풀이도 실전연습입니다. 내신시험을 볼 때 교과서만 읽고 가는 것보다, 10문제라도 풀어서 감을 잡고 시험을 보는 것이 심리적, 결과적으로 더 좋습니다. 수능도,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은 모의고사를 각 과목마다 최소 10회이상은 풀어서 실전감각을 예리하게 다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논술도 여러번 모의논술시험을 통해서 시간 내에 글을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수능 2.내신 3.논술 및 면접에 관한 공부법을 차례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수능공부법

08입시 이후로, 수능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영역별 공부방법을 들어가기에 앞서, 수능공부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글자를 읽어야 한다

수능의 모든 영역은 언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능은 읽는 것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수리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공부할 때에는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그리고 천천히, 뜻과 질문의도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문제에 나오는 용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어도 소홀히 봐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시간을 들여서 읽어야 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읽고, 수능 보는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이나 실험과정 같은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대충 읽어도 될지 몰라도, 수능은 다릅니다. 보도 듣도 못한 유형이 나오고, 처음 보는 실험과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문형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문제도 매우 길고, 제시문도 길습니다. 2006학년도 수능의 ‘화학2’나 ‘수리영역’은 이를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건은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고 말합니다. 역시 이 또한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수능의 의의를 알고 그에 따른 공부를 해야한다.

수능이라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말입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자격이 있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의에 맞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1.고등학교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느냐

2.대학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들을 알고있느냐

따라서 수능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므로 수능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접근방법이 틀렸고 문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어려운 개념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책을 다 보아서 소화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많고 내용이 어려우면, 학습내용을 잊어버리기 쉽고, 반복 복습을 여러 번 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수능 시험범위 밖에서 많은 양을 공부하면,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고 수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갖게 됩니다. 수능을 위해서만 공부할 때, 수능이 코 앞에 있을 때, 다른 범위를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문제 해석 방향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문 학원의 강사들도 이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수능 공부의 정확한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 됩니다.

가장 적합한 교재는 교과서, 기출문제다!

수능에 가장 알맞은 책은 교과서와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수많은 공부법 관련 책들도, 입시전문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가장 쉽고 정제된 문장을 사용합니다. 인과관계도 뚜렷하고, 개념 설명도 부드럽습니다. 교과서가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능의 모든 문제는 교과서를 토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제위원들은 교과서만을 참고로 해서 냅니다. 다른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걸러냅니다.

수능 기출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두 수능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실 것입니다. 평가원에서도 수능 기출문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5, 2006 학년도 수능에서도 아주 다수의 기출문제들이 약간씩만 변형하여 출제되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출제된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수능 문제 하나 하나는 수십명의 교수님들이 몇일간 합숙하면서 만든 문제입니다.

모의고사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들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제거된 명쾌한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출제경향이 어떤지, 어떤 것을 주로 묻는

지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2002 ~ 2006 학년도의 수능 기출문제들이 중요합니다.

유형은 한계가 있다구

수능을 유형으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형으로 공부한다면, 2등급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가끔 1등급도 나옵니다) 그 이상으로 꾸준히 나오기는 힘듭니다. 수능 때는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교수님이 이러한 유형학습법에 대해서 미리 함정을 파놓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유형으로 학습하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공부하는 것은 수능이 아주 쉽고 정형화 되었을 때만 통합니다. (2000, 2001 년도 수준...) 수능이 어려워지면 처음 보는 유형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능은 기본을 중시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을 편향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제가 말한 것들을 주(主)로 하며, 유연성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와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수능공부를 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 범위 안에서만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수능 범위 바깥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유형공부를 경계하자고 해서, 유형을 몰라선 안됩니다.(특히나 수리영역은) 제가 말한 것은 실력은 쌓지않고 유형공부만 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많이 푸는 이른바 양치기 학습법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문제를 맞추는 것을 연습하고 감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양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능에 대한 착각을 바로잡자

1.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잘 활용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

: 우리는 마치 수능이 “문제를 푸는 능력, 활용능력”만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학력고사와 완전히 반대되는 시험이라, 응용만 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흑백논리적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수능문제도 내용암기가 되어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외울 것은 외어야 합니다. 안외어도 되는 것도 외어두면 좋습니다. “몰라도 된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한 외어두면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수능은 시간이 걸린 시험입니다.

외어두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곧바로 꺼내쓸 수 있으며, 응용 또한 더 빨리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과 -극에서의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외우고 있다면, 그것을 유도해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행렬에서 케일리- 헤밀턴 정리를 모르고 있더라도 문제를 푸는 것이 가능하지만, 알고 있으면 더 빨리 답에 접근해갈 수 있습니다.

2. 주어진 범위만 알면 된다.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은 학습할 필요가 없다. 범위내에 있지만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 이것 역시 절대 아닙니다. 언어영역에서 시에 대한 배경을 몰라도 되고, 어차피 모르는 소설이 출제된다고 해서 작품들을 공부 안할 것입니까?

06수능에서 인문계 원점수기준 전국수석을 한 김정수 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시험은 ‘시험’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고3시절 수능을 공부할 때, 수능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단지 수능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채수시절, 수능에 나오는 것이든 나오지 않는 것이든, 배움이 닿는 모든 것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국수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100만 공부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100을 요구한다면 150을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3. 개념만 학습하면 된다. 개념만 있다면 어떤 문제는 풀 수 있다. 문제는 적게 풀어도 된다. 유형별로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 우리가 가장 넘어가기 쉬운 유혹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기에 이런 말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문제도 풀어봐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수능공부에 있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내용과 더불어 문제를 푸는 능력도 말합니다. 학습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맞추는’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자꾸 문제를 풀어보며 학습내용들을 반복적으로 기억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문제를 푸는 속도 및 응용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내용이나 애매한 내용이 있다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수능의 영역에 따른 공부법은 과목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언어, 외국어영역////////수리, 사과탐 영역

언어와 외국어는 언어에 관련된 내용이고,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은 특정지식 및 활용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경우는 거의 같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통일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1]

언어와 외국어는 기본실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어 영역은 기본실력을 키우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수능 유형을 모르더라도, 수능 문제를 풀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와 외국어의 유형학습은 기본실력을 먼저 키우고 해야 합니다.

반면 수리와 사과탐은 기본실력도 중요하지만 유형의 중요성도 크게 차지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국 물리경시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한 제 친구는, 수능 때 물리1 32점, 물리2 24점을 맞았습니다. (ㅋㅋ)

그렇다면 유형이란 무엇일까요?

전 ‘특정 문제가 습관적으로 묻는 방식’을 유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들은 유형이라는 것을 발문형식, 즉 문제가 무엇을 묻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유형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발문형식 뿐만 아니라 [보기 (->1,2,3,4,5번)], [문제에 제시된 조건]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형공부는, 수능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그것을 우리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언어와 외국어는 ‘감’이 중요합니다. 두 영역 모두 언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감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매일 지속적으로 적은 양의 문제라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가 언어를 쉽게 습득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지언어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수리와 과탐은 ‘단원의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기본 사고의 틀, 즉 어떤 단원의 총체적인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와 과탐이 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며, 이것 또한 감이 필요합니다. 허나 외국어와 언어 영역이 보다 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3]

언어와 외국어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은 미리 지문을 읽고, 해석하고 답을 도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고민거리에 관하여 답을 얻으면, 충격효과가 생겨 그 기억이 매우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반면 수리와 과탐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과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완벽히 만들기 위해서는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차원적인 암기과목입니다.

위와 같이 두가지 집단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각 영역에 관하여 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언어, 외국어 영역 공부법

지문이해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은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을 뿐, 거의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문제 수준이 언어영역이 훨씬 더 높을 뿐입니다. 두 영역 모두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문제는 그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를 묻습니다. 따라서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은 지문 이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문을 이해한다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몇몇 지문이해를 선행하고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은 수능을 앞두고 약 100일~200일 전부터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하라!

언어와 외국어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목들은 언어(language)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손을 놓게 되면 실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매일 일정량, 아주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일정해 나가는 것이 외국어, 언어영역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예습이 복습보다 더 중요하다!

언어와 외국어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을 하게 되면, 수업을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문을 분석해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나 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속에서 충격효과로 얻은 지식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석 안되던 부분이 갑자기 풀렸을 때, 언어 시 지문에서 뜻이 이해가 안가던 용어가 선생님의 한마디로 이해가 갈 때, 그때 우리의 뇌는 충격을 받게 되고,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어의 비중이 크다

단어의 비중 또한 두 영역 모두 중요합니다. 외국어 영역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단어가 중요하며, 언어영역 또한 중요합니다. 사전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모르는 단어는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휘를 많이 알면, 점수를 올리는 데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사회에 나간 뒤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상황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서술방식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에서는 글에서 주로 사용되는 3가지 방식만 알더라도 지문 이해를 쉽게할 수 있습니다.

1.not P

2.대조군

3.유추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not A는 글의 도입부분에서 통념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개의 글은 통념을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not A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ex.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본론인 A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2.항상 어떠한 글에는 대립요소가 있습니다. 글에는 보통 A가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B가 있는데, 이것들은 글이 전개되어 가면서 A'과 B'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잘 알아차려 흐름을 잘 파악하면 글을 읽는데 한층 더 수월해 집니다. 바로 대립이미지를 찾는 것입니다. 혼한 인문제재의 글을 예로 들자면, 처음에는 '물질'과 '정신'의 이름으로 중심 소재가 나왔다가, 이것은 '과학'과 '종교'의 이름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물질과 과학이 한 묶음이고, 정신과 종교가 한 묶음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두드러집니다. 외국어 영역 또한 이런 글읽기 방법이 잘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두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직접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지문들을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많은 글에서 볼 수 있는 전개방식으로서, 전반부에서는 혼한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앞에 나온 것에 대응시켜 사회 현상을 서술하는 글의 전개방식이 있습니다. 이 설명방법을 ‘유추’ 또는 ‘비유’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알아챌다면,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i) 외국어 영역

해석하는 실력을 키우라

외국어 영역은 학생들이 유형 위주로 공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주제는 맨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면 된다!

유형에 가장 크게 좌우받지 않는 영역이 바로 외국어영역입니다. 그냥 해석을 할 줄만 알면 어떠한 유형들이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유형에 대한 풀이법으로 맞추는 문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습법으로 공부한다면, 바로 코앞에 있는 수능은 잘 본다 할지라도(사실, 잘 보기도 힘듭니다.) 대학을 가서 또 다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지점에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본을 중시하고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외국 중학생에게 수능 시험지를 풀게하면 몇점이나 나올까요? 거의 다 맞을 것입니다. 외국어 영역은 해석만 된다면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외국어 영역이 한글로 되어 있다면 다 맞출 수 있겠죠? 우리는 바로 문장을 해석(이것은 번역과는 의미가 다릅니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리딩스킬? 꼭 해야돼?

명문 강사가 가르치는 Reading Skill을 학생들은 많이 선호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저도 Reading Skill을 배웠지만, 이는 외국어 영역 공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모른 채, Reading Skill에만 의존해서 푸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Reading Skill은 한번 배우고, 지문을 읽는 데에 도움을 조금 받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Reading Skill은 절대적인 이론이 아니며, 이에 벗어난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 연습하라구

학교 수업을 들을 때에는, 학교 수업에 나갈 지문에서 미리 모르는 단어들을 사전으로 찾고, 미리 문장을 해석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되는 문장들은 끝까지 해석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그래도 해석이 안되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알면 됩니다. 바로 이 때 충격효과가 발생해서 그것이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꾸준히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감으로 마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것은 여름방학이 끝나고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해석이 다 된다면, 문제를 푸는 것

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영어 선생님, 고민되니?

그리고 영어는 선생님의 따라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과목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공부하느냐에 따라 성취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전 'Reading Theory-해석이론-(넥서스 출판)'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영어를 배웠던 박상준이라는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나오면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출판과 동시에 www.readingtheory.com을 연다고 합니다. 책과 동영상을 보면서 병행학습을 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돈을 받고 책을 홍보하려는 아르바이트 생이 아닙니다. 제가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입니다. 아마 학원강사 중에서, 박상준 선생님처럼 계속해서 현대 언어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선생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전 고2 때까지 죽어라고 영어만 했었습니다. 중3때 외고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책 한권을 통채로 외워보기도 하고, 성문 종합영어를 보고, 맨투맨 종합영어 5권을 모두보고, 누드교과서도 보고, 그 시절 잘나간다는 선생님들의 과외도 받아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영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1등급대에 있어도, 완벽한 절대실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법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한 탓은 아닐 것이고, 우리나라의 구식문법이 체계도 논리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3 때 박상준 선생님께서부터 제대로 된 미국 본토의 현대 문법을 배우기 시작함 이후로, 영어 문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나올 문법들은,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성문류의 100년된 언어학을 짝 바꿀 획기적인 문법들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그 책에 대한 학습이 된 상태에서 그 책의 REVIEW에 있는 문장구조 표시를 그대로 따라해본다면, 영어 문법은 자동으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대학영어 이상의 수준은 몰라도, 고등학교 범위정도 안에서 나오는 문장들의 구조는 그냥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책의 REVIEW에 나오는 문장구조 표시방법은 정말 평생 써먹을 표시입니다.

어휘는 계속 공부하세요

그리고 어휘는 한번보고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학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를 물으면 1초안에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완전히 익을 정도로 반복학습을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시절 익힌 단어들은 평생 써먹을 단어들입니다. 제가 말한 1~N학습법으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단어장을 고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장이든, 그 한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만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다면,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 영역도 사전찾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계속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단어를 외울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를 일대일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실력이 된다면, 영한사전보다는 영영사전을 보기를 추천합니다. 영영사전을 보면, 영한사전에는 없는 미묘한 언어의 뉘앙스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영사전에는 좋은 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문은

Longman이 가장 좋습니다.) 예문의 사용으로 제대로 된 어휘의 쓰임과 문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영사전만 보다보면, 뜻이 풀어서 서술되어 있으므로, 단어의 뜻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는 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두 개를 병행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영영한 사전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단어를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대한 많은 단어를 외어두자

영어지문을 보다보면, 모르는 단어이더라도 유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가 같은 단어는 되풀이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같은 뜻을 지닌,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 언급된 글의 방식 중 <2.대립쌍>에서 설명한 부분(A->A', B->B')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단어를 외우지 않고 모든 단어를 유추해서 파악하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단어는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쉽지만 중요한 영어듣기, 꼭 잡아라

외국어 영역 50문제 중에서 17문제(14~17번까지의 말하기 문제 포함)는 듣기평가입니다. 듣기평가를 하는 데에는 총 17분이 소요되며, 배점은 100점중에 35점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외국어 영역 전체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공부를 안합니다. 그리고선 수능에서 틀립니다. 듣기는 그냥 쉽게 점수를 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독해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어듣기에서는 독해에는 없는, 실생활의 영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대본(Script)말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몇 개는 실제 수능에서도 직접 사용되므로, 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에 나왔던 것은 계속해서 출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보아줘야 합니다. 이는 3년동안 외우기에는 그리 많은 양은 아니므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듣기는 매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영어듣기도 언어이므로, 몇일 안하면 감각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영어듣기를 하는 시간은, 모든 수업과 자습이 끝나고 집에 온 밤 시간(10시정도)이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쉬는시간에는 친구들이 떠드므로 솔직히 공부하기 힘듭니다. 공부 시간은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감각을 유지해주는, 10분~15분 정도면 솔직히 충분합니다. 의욕에 차서 1시간을 해버리고 다음날 안하는 것보다는, 매일 15분씩 꾸준히 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영어듣기는 매일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은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반복하면서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했다면, 7일, 길면 한달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도 좋습니다. 그 내용이 완벽히 들릴 때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까지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슷한 속도와 단어수준의 듣기 내용은 귀가 뚫린 것처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듣기를 들으면서 따라한다면(Shadowing),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영어발음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듣는 수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 말한 수준의 영어는 모두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듣기의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입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하면 주요 포인트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에는 역시 집중을 하고 풀어야 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1~2일에 하나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기르고 영어듣기를 하면서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ii)언어 영역

어휘의 중요성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언어영역 또한 어휘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휘 중에서는 문제에나오는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휘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있다고 생각되는 어휘도 실제로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어조, 정조, 정서, 심상, 병치...) 문학용어 중에는 일본식 한자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어휘는 대개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러기에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지문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사전을 찾고,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으면서 사전을 찾는 작업을 1달만 하면 언어영역 평균점수가 5점정도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의도를 몰라서 틀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어뿐만 아니라, 사자성어나 속담, 관용어도 자주 출제되므로,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손으로 써보자

언어영역은 논리입니다. 모든 문제는 논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만약 언어영역이 논리적이지 않다면, 답이 여러개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만 잘 세워져 있다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이 ‘논리’라는 것은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논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지문에 대한 근거를 써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답에 대한 정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이 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어영역의 ‘법칙’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자신의 ‘서브노트’에 정리해나가면서 축적해나가는 것입니다.

머리 속으로 문제에 대한 논리를 생각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생각의 회로를 직접 써가면서 공부를 해야, 어떤 생각의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업이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주일정도 계속 하다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확인하기

언어영역은 보기와 제시문을 반드시 다 확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는 지문이라도 다 읽어야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보지 못한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 답이 나왔더라도 보기를 끝까지 읽어보아야 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확신했던 답보다 더 확실한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안하면서 그냥 문제를 풀면, 실수아닌 실수로 2~3문제씩은 틀리게 됩니다. 겸손한 태도로 차근차근 확인을 해 나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확인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더라도 시간은 남습니다.

지문과 문제사이의 관계

지문과 문제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지문에서 문제로만 논리가 흐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문으로 논리가 흐르면 대부분의 문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몇몇 문제는 틀릴 수 있습니다. 논리는 지문을 위한 충분조건입니다. 문제가 애매할 때 생각하면 좋습니다.

①문학공부

문학작품을 읽는 목적은 화자의 심정이해와 내용이해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고전문학

고전문학은 나올 작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전문학 작품들은 보기에는 매우 많은 양처럼 보이지만, 고전문학에 관한 책을 하루에 2~3지문씩만 학습해 나가도 6개월 내에는 웬만한 작품들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고전문학은 특이한 주제가 없습니다. 정형화된 주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전개과정, 표현기법도 현대문학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진이의 시조같은 특별한 경우만 몇 개를 외어둔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고 표현기법을 잡아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전문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석’과 화자의 심정 파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 알고, 그 글의 인물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고전문학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초반에는 점수가 잘 안나오다가, 후반에 가면 거의 다 맞게되는 것이 고전문학입니다.

그러나 고전소설은 60만 수험생 모두가 생전 처음보는 소설들(규장각에서 빼내오는...)도 출제되곤 합니다. 이 소설들은 고어체가 아닌 현대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설령 어려운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주석으로 달아 있으니 해석의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전소설의 문제유형은 현대소설과 유사하므로, 현대소설과 비슷한 방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고전소설에만 나타나는 특징들, 서술자의 개입이나 권선징악 같은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면 더욱 좋습니다.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학사적 의의에 따라 중요한 소설 리스트를 만들어도, 최근 수능에 출제된 현대소설은 대부분 그 리스트중 하위에 있는 리스트 들입니다. 수능은 우리가 처음 보는 소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는 소설 위주보다는, 낯선 소설 위주로 지문을 공부해야 합니다. 낯선 소설을 공부하기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약 20~30지문정도 접해보면 낯선 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시

시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시를 공부할 때, 참고서에 적혀있는 모든 세세한 사항들까지 다 공부합니다. 시어를 해석할 때도, 참고서에 나와있는 틀에 박힌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시는 내재적 의미에 주목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화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알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개의 문제를 푸는 데에 필요도 없을뿐더러,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수능 문제 위 [보기]에 반드시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낯설고 생소한 시일수록, 그런 [보기]가 지문에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우리가 100% 시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표현기법은 어떠한지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을 이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는 생략된 문장성분이 많고 시어도 많이 변형되어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시를 접하며 화자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시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②비문학

비문학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문제는 지문을 근거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창의적 추론문제도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문학은 다음과 같이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글을 읽어나가면서, 각 단락의 중심문장에다 밑줄 등을 표시를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연결사·지시어등에 표시를 하면서 읽어나갑니다. 한 단락을 다 읽었으면, 그 단락의 주제를 밑에다 적습니다. 한 단락에는 한 가지의 생각만 있습니다. 단락은 의미전달의 최소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글을 읽었으면, 그 글의 전체주제와 논리전개방식 및 표현방식 (유추·대조·예시·통념의 부정...)을 씁니다. 그렇게 하루에 3~5지문씩을 꾸준히 공부해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릴지 몰라도, 지문분석을 많이 하다보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익숙해져서 글의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쓰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문학은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문제의 답 또한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문제 밑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해서 답이 나오게 되었는지 써나가는 것이 논리를 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몽똥그러서 근거를 생각하기 보다는, 손으로 직접 답의 근거를 써나가 본다면, 문제를 풀 때 자신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으며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나갈 수 있습니다.

비문학은 많은 연습이 요구됩니다. 비문학 공부는 비단 수능에서뿐만 아니라, 논술 및 서적 읽기에도 도움이 되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학에 있는 독해 장치들

여기서 설명할 독해 장치들에서 벗어난 중심문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절대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여선 안되고,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말들을 주로 활용하며 글을 써나가는가를 이해하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선 어떤 장치를 쓰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1.글에서는 문단의 중요 내용을 포괄한 중심문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문단에는 하나의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2.뒷받침 문장의 유형은 [①이유제시 ②상세화 ③비유 ④예시 ⑤인용]의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①이유제시는, 대체로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인 것이다’ 등의 말이 주로 따라다니며, 일반적 진술의 뒤에서 이유, 근거, 원리 따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이끍니다.

②상세화는, ‘즉, 곧, 다시말하면, ~인 것이다, ~라는 뜻이다, ~를 의미한다’ 등의, 앞의 주제문에 있는 어떤 특정 개념의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서술어 어미가 주로 따라다닙니다. 상세화는 말 그대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③비유는 직유, 은유, 대유, 의인 등의 비유적인 표현을 말하며,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이미지를 연상시켜 이해를 돕습니다.

④예시는 ‘가령, 예를 들면, 예컨대’등의 말이 따라다니며 구체적인 사물 따위로 예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거나 앞 내용을 뒷받침합니다.

⑤인용은 사람이나 책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말하며,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소견 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3.중심문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참고해서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어조가 강한 문장을 선택합니다. 특히나 서술어의 종결어미(명령형, 당위형 종결어미가 쓰인 문장)를 유의해서 보면 좋습니다.
- ②접속어를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므로(따라서), 어쨌든, 요컨대,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여간, 좌우간’ 등의 접속사 뒤에 오는 말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접속어 이하의 문장이 앞에 내용과 비슷한 구체적 문장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예를 들자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역접’관계가 아닌 ‘첨가’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③포괄적 지시어인 ‘이러한, 이와 같이, 이렇듯, 이처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묶어 제시하는 주제문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 ④새로운 용어나 개념이 출현한 후, 다음 문단 등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주제문일 수 있습니다.
- ⑤유추의 방식, ‘이와 마찬가지로 ~도 ……’, ‘이는 마치 ~의 경우와 같다’의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는 주제문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⑥예시와 인용의 근처인 바로 앞문장이나 바로 뒷문장에서 주제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⑦부정보다는 긍정, 완곡한 표현보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진술된 문장이 더 주제문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2)수리영역, 사과탐영역

수리영역과 탐구영역은 개념이 중심입니다. 외국어 언어영역과 같이 매일 제시문을 접하며 감을 유지하기보다는, 천천히 절차를 밟아가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위 수리 사과탐 영역들은, 문제에서 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익숙한 내용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실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다가도 스스로 실수를 하는 경우 또한 상당합니다.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고 푸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i)수리 영역

포기하지 마세요

수학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문과 학생중에서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수리 나형은 수학 포기자가 많아서, 수리 가형보다 쉬움에도 불리하고 등급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능에서는 수리 나형은 더욱더 쉽게, 수리 가형은 되도록 어렵게 내려고 합니다. 게다가 문과 수리‘나’형은 ‘수학1’의 범위만 출제되므로 범위도 적습니다. 이과는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므로 수학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절대 수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학은 절대 실생활에 쓸모없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논리로서, 생각의 힘을 기르기에 상당히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을 못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해나가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수학공부를 통해서 기른 생각의 힘은 우리가 어른이 된 뒤에 많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수학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수리영역을 시작하는 기본 자세

수리영역을 많이 공부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안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성적이 오릅니다.

수학은 암기과목이 아니라 하지만, 암기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식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고하면서 쓰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기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수학적 아이디어 또한 암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고를 방해할 수 있지만, 암기 없이는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를 알아두면, 남이 못 푸는 문제를 훨씬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120을 4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이미 한번 풀어봐서, ‘이항정리를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접한 사람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문제를 단시간내에 풀어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요소들은 반복해서 우리 몸에 익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적 언어와 사고를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기본 예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수학은 고차원적인 암기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학 실력과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이 작용하는 것은 바로 집중력(사고력)입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하는가. 생각을 많이하는가가 수학 실력을 높이는 데에 더 크게 기여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수학실력은 시간에 비례하고, 공부할 때의 집중력의 제공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C^2$)

따라서 수학 공부를 할 때에는 머리를 혹사(?)시킬 정도로 두뇌를 사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합니다. 기계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풀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정말 집중해서 풀어야 합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서, 힘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풀이과정을 차분히 써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풀이과정이 지저분하면, 글자를 잘못 읽거나 과정을 잃어버리는 등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이과정을 깔끔하게 써가는 것은 실수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과정을 써가다보면, 생각의 회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논술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수학문제를 풀다가 당연히 답을 보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을 보지않고 시간을 무한대로 사용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생각의 힘을 길러낸다는 면에서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일정시간 이상 풀다가 막히면 우리는 답을 봐야 합니다. 이 때, 답을 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후, 우리는 답을 보고 풀이과정을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선 안되며, 답을 보고 자신이 직접 다시한번 풀어봐야 합니다. 다시 풀면서 느낄수 있겠지만, 답을 보고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풀이과정을 자신이 이해했다고 생각했다라도, 풀이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손으로 쓰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틀렸거나, 막혔던 문제는 손으로 다시 풀이과정을 차분히 써나가야 합니다.

수리영역의 시작 - 교과서

수리영역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수능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3~5분안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이상한 방향에서 접근하면서 풀거나, 문제를 보고 당황하면서 풀어서 답이 안나오는 것이지, 기본이 제대로 갖추어져있고 차분히 풀어나간다면 수능에 있는 어떤 문제는 어려워야 5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리영역을 공식만 가지고 풀려 합니다. 먼저 말해둘 것은, 수능에서의 수리영역은 수학

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수와 식의 나열로 된 문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리영역은 언어로 서술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포함하고, 수학의 개념을 묻는 문제 위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수리영역은 수학적 사고와 함께 개념적 이해단계 및 언어의 이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부방법도 수학과는 약간 달라야 합니다.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사과탐 영역과 같이 내용 또한 비중을 두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수리영역을 시작하는 교재는 교과서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과서가 쉽다고 무시하는데, 쉬운 문제를 무게있게 풀어서 자신에게 익숙하게 해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모든 예제 문제와 개념등을 자신에게 익숙하게 했다면, 이는 수리영역을 공부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대단한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또한, 교과서는 출제위원들이 유일하게 참고하는 참고서입니다. 교과서를 이용해서 수능을 냅니다. 변별력을 주는 문제는,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절대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검토해서 배제합니다. 시중의 문제집에서 문제를 낸다면, 이미 유형화되어서 대부분의 학생이 아는 것들을 중심으로 냅니다. 변별력 높은 문제는 교과서의 내용과 도표, 그래프, 사진과 소재를 토대로 해서 냅니다.

교과서 학습은 단순히 문제를 풀고, 단원종료문제만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정독이 전제된 개념학습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네모박스 쳐있는 공식만 보고, 단원문제 다 풀고 '교과서 끝냈다~ 너무 쉬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를 볼 때에는, 먼저 목차를 읽고,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단원 앞의 배경설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목표를 읽습니다. 학습목표가 수능 1문제입니다. 이러한 학습목표가 여러개 합쳐져서 나오는 것들이 수능에서의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설명 전에 있는 탐구활동을 꼭 한번씩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7차교육과정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체계이기 때문에 탐구활동 만큼 자기주도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습서의 내용은 보지 않으면서, 직접 해보면서 수학적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에는 한글자 한글자를 정독해나가야 합니다. 그 용어들을 수능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제의 풀이과정을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예제의 풀이과정은 가장 정제된 풀이과정입니다. 수능의 문제들은 교과서 예제수준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이외의 어떠한 참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보고, 반복학습한다면, 똑같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교과서가 아닌 다른 참고서를 계속해서 풀고 있다면, 과정을 변경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매하게 공부하더라도, 시간과 집중을 많이 투자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수능 수리영역 30문제 중에서 25문제(약 80%)는 익숙한 문제들입니다. 처음 봤더라도 과정만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만 다 맞추더라도 대개 2~3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권은 기본적인 유형만 익히고 실수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성적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푸는 실력은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과서만 중시하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선 안됩니다. 문제는 안풀고 개념만 학습하며, '난 올바른 공부방법으로 학습했으니 문제는 적게 풀었어도 수능은 잘 볼거야' 하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수능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능 대비용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무 문제집이나 상관 없습니다. 동영상 강의 문제풀이 교재도 좋고, (선생님과 함께 나가는..) 학교에서 지정해준 문제집도 좋습니다. 다만 염두해야 할 점은 처음 시작할 때는 '1권만 파라'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서 어떤 교재를 나간다면, 그 교재만으로도 필요한 유형을 익히기에는 충분합니다. 문제집의 문제들은 다른 문제집과 80% 이상이 겹칩니다. 각 단원의 기본적 유형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권을 파고, 반복학습만 꾸준히 함으로써 유형만 익히더라도 점수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 문제풀이를 하면서 유형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하길 추천합니다. 다음 과정은 ‘가장 이상적이며 원칙적인 과정’으로서, 자신의 실력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1)한 문제집을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풀든지, 자신이 풀든지, 우선 한번 풀어나가십시오. 그 도중에 자신이 약한 부과 중요한 부분, 또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볼때, 경중을 따지면서 읽을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 문제집을 나간다면, 예습-복습-재복습 총 3번 풀어나십시오. 수업 전에 문제를 쭉 훑어보거나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복습하세요. 복습 할 때 모든 문제는, 처음 보는 것처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주일동안 나갔던 부분을 다시 풀어보구요. 이해도가 완벽하지만 진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혼자 나간다면 1주일 동안 쭉 문제를 푼 뒤, 주말에 다시 풀어서, 2번정도 풀면 됩니다. 진도가 빠르지만 잊어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에 총복습을 통해서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면 됩니다.

(2)이렇게 공부해서 책을 한번 끝낸 뒤에, 처음부터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한문제도 빠짐없이. (기본적인 계산문제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상당히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과정을 거쳐야지 탄탄한 기초가 세워집니다. 이 과정은, (1)과정을 하는 중에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2주일 간격으로, 그 동안 나갔던 진도 내의 문제를 모두 다시 푸는 방법입니다.

(3)자신이 약했거나 잘 몰랐던 부분을 골라서 공부합니다. 체크해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총 4~5번 정도 한 문제집을 보게 되는데, 단원 전체의 윤곽이 잡힐 것이고, 각 단원의 대표적인 유형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원을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모의고사를 풀면 막히는 문제는 5문제 주위일 것입니다. 막히는 문제이더라도, 시간을 조금만 내서 생각해보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90점 주변의 점수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력을 기르는 과정은 대단한 추진력을 필요로 합니다. 중간에 많은 장애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까. 전 현역, 재수기간동안 한번도 수리영역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평가원 시험), 그 어려웠던 06수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리영역 1등급(98%)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계획을 해나간 것이 base였다고 생각합니다.

위 과정은 역시 집중을 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수능 문제를 대하듯, 처음 문제를 풀 듯 하나하나 집중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신이 익숙한 문제이더라도, 집중을 하면서 정신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대충 유형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한다면, 기본 틀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를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위 과정이 끝난 뒤에는, 다른 문제집을 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문제집을 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때에도 한번 풀고, 주말에 다시 풀어서 반복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의 의의는, 새로운 문제를 접함에도 있지만, 아는 문제를 확실히 맞추기에도 있습니다. 아는 문제를 맞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력을 점수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브노트 chapter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실전감각 익히기

실전감각이 없다면 수리영역 점수가 10점 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개념정리도 중요하지만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실전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수능 1달~2달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모의고사 점수가 안나온다고 해서 마구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그 전에는 실력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험장에 있듯이 완벽하게 집중해서 풀어야 합니다.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고, 답이 안나오는 문제는 대입해서라도 찾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정말 집중을 해서 시험장에 있듯이 시간을 재면서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를 혼자서 풀 때는 다소 긴장감이 없으므로, 친구 한두명을 정해서, 같이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 점수를 비교하고, 음료수 내기를 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

(ii)사과탐 영역

탐구영역이 어려워졌다.

06수능부터 특히 두드러진 점은, 탐구영역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수능에 나올 것만 베퉼 치기하듯이 공부해서는 고득점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탐구영역은, 재학생이라면 학교수업과 연수의 공부 때문에 방학때 외에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학기간과 고등학교 1,2학년 때 공부를 해놓아야 합니다.

교과서로 공부하기에는 솔직히 무리다.

솔직히 탐구영역의 교과서는 수학교과서에 비하면 혼자서 공부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교과서에는 실험에 대한 답이 나와있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습서를 사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실험을 참고할 자습서나 기본서가 필요합니다.

유명 학원 선생님이 정리한 책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책들은 꼭 필요한 내용만 나와 있으며, 문제도 엄선된 것들입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이론을 파악하려면 학원선생님들이 정리한 교재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암기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탐구영역은 원칙적으로는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하지만, 암기적 요소를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생물같은 과목은 암기적인 요소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예전같이 지식을 모르더라도 주어진 조건만 이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변별력이 없습니다.

내신공부를 제대로 해 놓아라.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적인 사항, 어떤 때에는 특수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해야 할 것은 필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사항들은 고등학교 1,2학년 내신공부를 할 때 미리 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를 경계하라.

한 문제를 틀리면 등급이 2등급, 심하면 4등급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 탐구영역입니다. 가장 살떨리는 영역입니다. 한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면 인생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습으로 문제를 풀 때, 익숙한 내용이더라도 천천히, 집중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빨리 읽고 답을 빨리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또 틀린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마킹을 잘못했든, 번호를 잘못봤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과탐은 특히나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탐에 올인하지 마라

점수가 안나온다고 해서 과탐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연수의 비중은 줄이지 말고, 과탐은 주로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연수외는 잠시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점수가 꺾어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 한문제 한문제를 제대로 풀어라.

문제를 제대로 푸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문제를 풀다가 확실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한 뒤, 부분으로 가서 확실히 공부를 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찍어서 맞추고서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틀린 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어떤 점에서 자신이 잘못해서 틀렸는지 제대로 보십시오.

2.내신공부법

수시모집이 늘어남에 따라서,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내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08학년도 입시부터는 내신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되기 때문에, 좋은 내신은 대학갈 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만 올인(All-in)을 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내신은 비교적 점수를 받기 쉬운 시험입니다. 학생들은 고3때 정도 와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1학년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교1등을 할 수 있을텐데....’ 하고 말합니다. 출제되는 형식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학생들간의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내신을 극도로 어렵게 출제하기 때문에 이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6~10등정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며, 성적은 차츰차츰 떨어져서 급기야 중3 마지막 시험에서는 평균 67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평균 95.9, 전체석차 26/606을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첫시험에서는 평균 98.7 전체석차 3/600을 받았습니다. 등학교 첫시험때는 매일 내신만 공부했고, 고3 시험때는 3일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 내신 고득점의 '비결'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전교 내신 상위권 애들을 줄곧 관찰해왔고, 저 또한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 고득점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걸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내신하면 굉장히 어렵고 이상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흔히들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두 문제는 상당히 이상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량의 문제집을 사서 막 풀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교 1등을 줄곧 하는 애들을 관찰해온 결과, 내신을 잘받는 비결은 별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 학교수업에 충실하라!

다들 많이 들어왔을 말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학교수업에 충실하십시오.

내신 문제는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다

학교수업에 충실하면, 내신은 쉽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입에서 내신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배우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이 출제하시더라도, 다른 반과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문제를 찍어주거나 공부방향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내신을 학원에서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원 선생님은 내신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에게 모든 범위를 공부시킵니다. 이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범위에서 출제될지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공부한다면, 더 적은 시간동안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라도 필기하라! 끊임없이 필기하라

수업을 들을 때에는 아는 것이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필기해야 합니다. 설새없이 손을 놀리십시오. 시험이 끝난 다음날 수업하는 것이라도 필기하십시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해서 안 적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되고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기를 안해놓으면, 시험 때에 임박해서 공부할 것이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라

내신 수업 시간에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 합니다. 특히나 암기과목 같은 경우는 따로 공부할 시간은 아까운 것이 사실이므로, 그 시간에 배운건 모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공부 안하겠다는 신념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되며, 시험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내용을 이해하기에 편하고 시험을 볼 때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선생님이 강조한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50분이라는 수업시간에서, 한가지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복습하면 좋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에 쉬는 시간동안 배운 것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기억을 정리해보면, 기억의 지속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1~2분동안만 내용을 훑어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2)수업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라

선생님과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을 분석해야 합니다. 전년도 내신 기출문제나, 그 이전에 봤던 시험들을 모아서, 그 선생님이 자주 출제하는 부분을 보면 시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인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재밌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시험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며,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라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외우고, 학교에서 나가는 교재와 프린트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교재와 프린트에서 많은 시험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문제집을 먼저 푸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 자료를 아예 다 외어버리고, 교과서 내의 문제들, 실험결과는 몇 번씩 반복적으로 풀고 봐서 눈을 감아도 눈에 선히 보일 정도로 공부하십시오. 그런 과정들을 거친 후, 문제를 풀어서 ‘아는 것을 확인하는 연습’.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신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수업도 열심히 듣지 않아 초 벼락치기를 해야한다면, 위에 제시된 방법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시험 며칠 전에 친구들의 필기를 베끼는 것도 좋다

그래도 수업시간 중에 필기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 몇일 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 2명정도 잡아서 필기를 베끼면 좋습니다. 다른반의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다면, 그 반 학생의 필기를 베껴야 합니다. 이때는 비굴(?)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행평가, 절대 깎이지 마라

수행평가는 잘해야 합니다. 수행평가만 잘하더라도 상당한 점수확보를 할 수 있으며, 좋은 수행평가는 필기시험을 볼 때 든든한 뼉이 되어줍니다. 내신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중에는 발표하는 것도 있고, 수업태도도 포함되어 있으며 조별 숙제 및 과제물도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다이어리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수행평가 지시사항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설명하면, 머릿속에다만 기억한 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숙제 제출날 안가져오게 되고, delay 때문에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또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면 제출날을 염두에 두지 못해서, 미리 수행평가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다이어리든지 숙제노트든지 아무거나 수행평가 지시사항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숙제, 레포트, 조별과제 등등..

두 번째로는 정성들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0분 투자하고 수행평가 점수 8/10 을 맞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2시간 투자하고 10/10을 맞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을 기하며 준비하십시오.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글씨를 잘 써서 내면 선생님이 1점이라도 더 줄 것입니다.

마지막 사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내일이 제출인데 오늘 시간이 없다면, 밤을 새서라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인터넷 자료를 교묘히 베껴도 좋습니다.

(4)시간에 따른 내신 공부법 (시간축)

2~3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내신공부는 약 2주나 3주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달 전부터 하면 공부가 질리게 되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또 그렇게 장기간 계획을 잡고 공부한다면, 오히려 모두 안다고 생각해서, 최후의 순간에 공부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2~3주 전쯤에 주요과목은 수업을 제대로 들어봤다면 이미 한 번씩은 봐놓은 상태이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봐야 합니다. 암기과목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외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볼 때에는, 대충보고 계속 읽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정독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독은 온 정신을 다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정독으로 책을 3번정도 읽으면 어느정도 개념이 잡힙니다. 그정도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내신 문제집 또는 학교 프린트 문제로 문제를 풀면 개념이 제대로 잡힐 것입니다.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느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험 3일전까지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한 뒤에, 시험 2일전부터는 첫날 볼 과목만 공부해야 합니다.

1,2학년 때 내신에 무게를

1,2학년은 내신공부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어는 수능공부와 연계되므로 학교수업 예습복습으로 계속해서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내신공부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공부와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수능공부가 내신공부가 될 수 있으며, 내신공부가 수능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험 때 학습해야 할 주요과목들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뿐더러, 수능공부도 체계적으로, 부담없이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능 고득점자들은 내신도 일정수준 이상입니다. 이는 절대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논술공부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내신에서 얻은 배경지식은 논술 및 심층면접을 할 때의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1,2학년때는 내신 공부를 통해서 수능공부의 밑바탕을 만들어야 합니다. 1,2학년 놓고 3학년 가서 수능 공부 시작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점수는 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학년 때 교과서로 확실히 기본을 다져놔야 합니다. 쉬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튼튼한 기초를 쌓아놔야 합니다.

3학년은 수능 및 논술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신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3학년 때는 학교 수업도 수능 및 논술형 수업이기 때문에, 내신의 부담이 그리 크진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하되, 공부는 5일전 정도부터 하고, 전날에 온힘을 다해서 공부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신은 상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수능공부를 한다고 하고서, 내신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2학기 되면 이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높은 등수를 따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내신도 끝발이 중요하다

벼락치기가 통한다 !?

내신은 벼락치기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벼락치기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은, 아무리 과정이 좋았더라도, 마지막을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면 망할 수 있습니다. 내신시험 전날에 공부를 안하면 실수아닌 실수로 많은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아....공부했던건데’ 하면서 헛갈리다가 문제들을 틀려버립니다. 전날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전날에는 원칙대로 공부하지 마라

시험 전날에는 이해가 안되는 것은 ‘닥치고 암기’입니다. 이해하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암기해버리십시오. 내신시험 전날에는 컨디션 관리가 그리 필요하지 않으므로, 잠은 조금 덜 자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5~6시간정도의 잠이면, 시험을 보는 데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내신은 수능과 같이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기간, 이렇게 싸워라

시험 당일날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료를 봐야 합니다. 이때, 친구들과 떠드는 것은 바보같은 행위입니다. 친구들과 떠들면 정신이 산만하게 되어 실수를 많이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중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시험보기 전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과 시험 중간의 쉬는 시간에 정답을 맞춘다고 오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혼자 구석에 가서 조용히 공부하거나, 화장실에 갔다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끝난 시험이라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점수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는 중간에는, 다 풀었다고 해서 자면 안됩니다. 내신점수는 한번 받아놓으면 다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시험시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합니다. 다 풀었더라도 몇 번씩 검토를 계속해야 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피시방에 가거나 농구·축구등의 운동을 해선 안됩니다. 그냥 집에와서 전날 부족했던 수면을 보충한 뒤,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쉬지말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용들이 이미 다 아는 것이라라고 생각되더라도, 시험 전날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서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자습을 할 때에는, 친구와의 관계는 일절 끊어야 합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자신의 세계에서 싸워야 합니다. 친구와 같이 공부하면 절에 들어가도 망합니다. 도움을 서로 주는 관계는 좋으나, 그런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잠깐 공부하고 피시방에 가거나 무엇을 사먹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수능은 다시 볼 수 있지만, 내신은 비교내신처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적의 수정이 불가능한 것이 내신이기에, 내신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후회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6) 과목별 학습법

각 과목별 공부법에 관하여 적어놓았습니다.

이는 시험기간이 임박했을 때 하는 방법으로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영어

단원 훑어보기+ 단어학습 ⇒ 다이얼로그(Dialog) 등의 회화문 보기 (선택)

⇒ 본문 학습+ 단어 2차 학습 ⇒ 문법 중심으로 본문 보기 ⇒ 내용 중심으로 본문 보기

⇒ 연습문제풀이 ⇒ 문제풀이

영어는 이수단위가 높아, 내신 시험 때 큰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문 이과 공통으로 중요한 단원이기에 영어에 관하여 가장 먼저 서술합니다.

위 표에 있는 공부 절차는 점수 따기에 제가 경험하기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수업에 참여해서 본문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과, 수업을 듣지 않아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학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 당 배분되는 시간 뿐입니다.

*그래도 수업시간에 수업을 들어놓아서 전체적인 맥락과 문법적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면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습서로 스크립트를 참고하거나, 해석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단, 자습서에 의지해서 학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시험 공부 전에 수업시간에 못한 필기를 친구들의 책을 빌려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먼저, 단원의 주제가 무엇인지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접해보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2. 다이얼로그나 간단한 대화를 대본(script)를 보면서 공부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익힙니다.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3. 본문을 읽습니다. 1단계에서 학습한 단어들을 문맥에 맞춰 해석해 나갑니다.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학습합니다. 해석을 할 줄 알도록 하고, 수업시간에 필기해두었던 기본적인 문법사항들을 익힙니다.

4. 문법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봅니다. 어떤 숙어가 사용되었는지, 어순이 어떠한지, 시제가 어떠한지,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주 사용되는 문법적 표현은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봅니다.

특별한 색깔의 펜을 사용하면서 체크하면, 다시 볼 때 문법에만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5.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즉, 영어책이 국어책인 것처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글의 흐름을 직접그림을그려서재구성해보면,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도 오래갑니다. 연결사 (However, Therefore 등등..) 도 눈여겨 보고, 빈칸문제로 나올 것을 대비합니다.

6. 교재 뒤쪽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내신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출제한 다른 기출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한다면 훌륭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수학

단원별 교과서 내용학습 + 예제, 문제 반복풀이

⇒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또는 보조교재) 풀기

⇒ 연습문제, 프린트 물 반복해서 풀기 + 끊임없는 내용참고

수학 역시 영어와 쌍벽을 이루며 내신 시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수학시험은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수학 난이도를 짐작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낮다면, 실수하지 않도록 계산을 주로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제]와 [문제]를 3번정도 풀어서 계산을 익숙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가 높다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면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암기’ 해둬야 합니다.

지금부터 위에 있는 내신수학공부 절차에 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내신에서 60~80%는 아주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교과서를 얼렁뚱땅 공식만 보고 문제만 푸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도 안 될뿐더러 재미도 없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으면서 그와 함께 흐름에 맞추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시간이 정말 없을 때에는 대체적인 이해만 하고 공식만 보고 곧바로 예제와 문제풀이에 돌입해도 좋습니다.

문제와 예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푸는 밑바탕입니다. 예제와 문제를 자유롭게 풀 수 없다면, 응용도 쉽게 못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바탕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문제풀이가 끝났다면 연습문제를 풀지 마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서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십시오.

2. 시험범위 안에있는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응용된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문제에 있는 문제 중 최소 1~2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2번 이상 풀어서 익숙하게 하십시오.

3. 학교에서 나가는 부교재나, 수행평가로 나누어주었던 프린트물을 푸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문제를 낼 때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들입니다.

4. 여태까지 풀었던 연습문제와 프린트물을 반복해서 푸십시오. 그러면서 모르거나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으면 내용설명 부분으로 가서 다시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마지막 대비입니다. 문제를 풀 줄 안다고,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선 안됩니다. 직접 풀어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풀어봐야 합니다.

③ 사회

내용 훑어보기 => 집중해서 3번 읽기 (초점을 바꿔가며) => 학교 프린트물 참조

사회는 교과서가 핵심입니다. 교과서 자체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소설 보듯이 책을 쭉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집중하면서 책을 읽어갑니다.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갑니다. 3번정도 그렇게 읽어가면 책의 윤곽이 머릿속에 잡힙니다. 이 때 초점을 다르게 하면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됩니다.

제가 어디에서나 초점을 다르게 잡고 읽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상의 천재들은 문제를

다방면에서 풀려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제에 대한 지식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점을 다르게 보면서 사물을 보면, 한 관점으로 볼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해도를 높여주며, 궁극적으로 고득점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물이 사회 관련 과목에서는 중요성이 보다 높습니다. 사회과목의 프린트 물(또는 부교재)은 대부분 선생님 본인이 직접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보면, 선생님이 책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과학

교과서 + 참고서 읽기 = >실험 및 탐구자료 보기 = >세부사항 외우기(선택) = >프린트 및 보충교재 참조 => 문제풀기

과학은 교과서만으로는 솔직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실험자료에 대한 답이 안나와있으며, 문제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고서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 교과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서를 참고해도 되고, 병행해도 좋습니다. 단, 교과서를 아예 안보고 참고서만 봐서는 안됩니다. 선생님은 교과서를 통해 출제하며, 교과서에는 수업시간에 한 필기가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했으면 시험 범위에 있는 실험 및 탐구자료를 봅니다. 과학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논술에서 실험이나 탐구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세부사항을 외어나갑니다. 생물을 예로 들자면,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외우는 것입니다. 물리 같이 외울 항목이 적은 과목은 이 부분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생물이나 지구과학같이 암기적 요소가 있는 과목은 이 과정을 조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보충교재나 수업시간에 나눠준 프린트물, 또는 노트필기를 봅니다. 선생님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실전연습인 것입니다. 자습서에 있는 문제집이나 참고서에 있는 문제집을 풀입니다. 과학은 문제유형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유도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⑤기타 암기과목

암기과목은 위에서 제시한 ③사회과목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단, 수업시간에 모든 것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암기과목에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나가는 진도를 최대한 효과화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여 잘 들으면 이해하고 외우는 데 드는 시간을 매우 줄일 수 있으며, 선생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Tip))내신에서 서브노트를 정리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3.논술 및 면접

논술 및 면접은 수시모집 때, 그리고 수능이 끝난 뒤 정시모집 때 부딪히게 됩니다. 08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 고사의 도입으로, 그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수리논술이 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논술은 이제 인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염려해둬야 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대학별로 고사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짧게 논술 및 면접의 효율적인 공부법 및 꼭 알아둬야 할 점들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독창적인 사고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2학년 중반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논술, 면접의 준비는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때까지는 배경지식을 쌓고, 바로 앞에 있는 내신이나 잘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도 아낄 겸 일찍하면 좋지만, 저는 일찍 시작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일찍부터 시작할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ㅋㅋㅋ).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논술을 하기 위해선 단단한 사고와 지식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학교 정규과정 공부를 하면서 학문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십시오. 특히나 수학은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에게도 필요합니다. 수학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논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힘을 기르기에 매우 좋은 과목입니다. 또한 그 기간까지 많은 책을 읽으면서 배경지식을 쌓으십시오.

정시로 대학을 갈 예정인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후에도 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능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그리 늦지는 않습니다. 틈틈이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해두면 좋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갈 경우에는, 뒤쪽 챕터인 <수시모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논술공부

하면 된다.

“논술을 아무리 해도 실력이 오르지 않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몸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피 부리는 공부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기만 한다면 실력은 조금씩이라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공부과정

①논술은 많이 써 봐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써 봐야 실력이 늡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 선생님의 이론설명을 듣더라도, 이는 몇 번 자기가 써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②써본 다음에는 반드시 첨삭을 받아야 합니다. 첨삭은 학교 선생님에게 받을 수도 있고, 논술 학습지를 신청하여 우편으로 보내어 받을 수도 있고, 학원을 신청하여 학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첨삭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답안지의 채점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채점을 해야 합니다. 그냥 써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써보고 나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첨삭을 하라는 것입니다.

③첨삭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첨삭을 받은 것에 따라서, 다시 써보세요. 이는 매우 귀찮고 스트레스 쌓이는 작업입니다. 한번 쓴 글을 또 쓰라고?! 이는 무슨 사형선고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싫은 마음을 접고 다시 글을 써보십시오. 첨삭에 언급된 사항을 유의하면서 다시 글을 써보십시오. 다시 써본 다음에는 자기 실력이 몰라보게 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은 어디를 다녀야 하죠?

논술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거의 다 학원을 다니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학원을 다니냐가 관건입니다. 논술학원의 부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큰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학원과, 작은 강의실에서 소수의 인원을 구성하여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이라도, 후자를 택하십시오. 논술은 첨삭을 직접적으로 받아보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알고,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 하나를 파악해서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길 바랍니다.

논술, 이것은 놓치지 말아라 -

(1)제시문 분석

제시문을 분석하는데 몇분을 투자합니까? 한번 쪽 읽고 Feel받으면 개요를 짜기 시작하나요? 그래선 안됩니다. 제시문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토대로 생각하라고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제시문이 주어진다면 그 제시문들간의 연관성, 공통성도 알아야 하며, 그 관계들이 글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수능 언어영역 공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영역도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언어영역을 잘하면, 제시문도 분석을 잘 합니다. 단, 제시문들간의 연관성과 공통주제를 찾는 연습은 언어영역보다 더 심도 있게 해야합니다.

(2)개요짜기!

여러분들은 개요를 짤 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10분도 안되는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선 안됩니다. 개요를 짤 때는 30분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글쓸 시간도 모자라는데 30분이나 시간을 왜 투자하냐구요? 개요가 잘 짜여져 있으면, 글쓰는 시간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전 개요를 세세하게 짰 뒤에 10분만에 글을 다 써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개요는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및 과정이 세세하면 세세할수록 더 빨리 효율적으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0분을 버리고 50분을 얻으십시오.

개요짜는 것도 역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글쓰는 연습을 할 때, 개요를 자세히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시를 드는 것까지, 표현법까지 개요를 자세히 쓰십시오.

(3)특색있게 아니면 모범답안대로?

논술을 할 때, 자신만의 글을 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글이라는 것도 어

느 정도의 바탕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글 쓰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모범답안에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대충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때때로 글의 순서도 바꿔보고 특이한 예시도 써보고, 자신만의 표현법도 써보고...

(ii) 수리논술

수리논술이란?

수리논술은 2005년 고려대학교 1학기 수시문제에서 처음 등장했던 방식입니다. 이는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하여, 08년도 대학별 고사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수리논술은 답이 정확히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알고있는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서술식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문제방식입니다. 07학번까지의 서울대학교 정시 수학 심층면접문제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수리논술과는 약간의 교집합은 있지만 서로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적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문제나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벽한 풀이방법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리 + 논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하고, 2.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고 참신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1.수학적인 사고력, 논리력 기르기

(1)오랜 시간 생각해보라

수리논술 문제는 수능이나 내신문제같이 2~3분 생각해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10~20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답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할 때 문제가 안풀린다고 해서 답을 곧바로 보지 마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생각해봐야 합니다. 1시간이 넘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은 더 커갈 것입니다.

(2)모범답안을 그대로 베껴보라

수능이나 내신은 과정이 어쨌든 답만 맞추면 끝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공부할 때까지는 풀이과정 쓰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심층면접은 다릅니다. 풀이과정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고, 그 근거 또한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풀이과정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답지를 그대로 베껴써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안을 써나가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2.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고 참신하게 표현을 하는 능력 키우기

(1)정보를 재조합하여 정리하는 연습을 하라.

수리논술은 글자 하나하나를 원고지 칸에 맞춰서 쓰지 않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자유로이 연필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뿐이 아니라 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표나 그림은 글보다 전달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표나 그림 등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다면 advantag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를 우리 자신이 재조합하여 보기 좋은 형태로 변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 연습은 모든 자료를 시각적으로 변환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나 정보더라도, 그래프, 도표, 그림으로 바꾸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문제에 이익(=100)과 손해(=30)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표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이라는 정보도 추가하면 좋겠죠.

이익	100
손해	30
순이익	70 (=100-30)

이렇게 단순한 정보도, 표뿐 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원을 전체 이익이라고 놓고 다음과 같이 새롭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 안의 영역으로 각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위와 같이 어떤 정보든 여러 가지의 시각적 표현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에 따라 가장 알맞은 표현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에 따른 어떤 기업의 매출 추이는 표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보기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재조합하여 표현하는 연습은 자료를 시각적으로 바꾸는 연습 뿐만 아니라, 가장 합당한 시각적 표현을 찾는 연습도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2)논술과 마찬가지로, 많이 써보라

수리논술도 글을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과생들은 말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몰라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황설수설 하다가 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흐름도 부드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봐야 합니다. 귀찮다 생각될지라도 써봐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히 풀이과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글로 직접 써보면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생각처럼 쉽게 써지지 않는 것입니다. 글의 문법과 맞춤법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상) 부분의 바른말 쓰기 부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iii) 면접

요즘에는 정시 및 수시 모집 때, 교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 자기 생각대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면접장을 나오곤 합니다. 면접은 중요합니다.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교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점수가 낮더라도 교수 눈에만 잘 들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접에서 알아둬야 할 포인트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통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인지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 모양이나 얼굴 표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의식적으로 자꾸 거울을 보면서 말

하는 연습을 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동영상이나 녹음기 등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기록해서 다시 보거나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끊임없는 말하기 연습, 그것이 합격의 비밀

면접에서 할 말을 완벽하게 준비하였더라도, 직접 말을 꺼내보면 더듬거리거나 할말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해보고, 그 다음에는 강약 및 호흡을 조절하면서 말해보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말해보고. 그렇게 말하기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 질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듣는 상대를 정하고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로부터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받는 것도 면접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역할에 가장 적당할 것입니다.

행동, 목소리는 자신 있게

면접 장소에서 면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서 웅얼거립니다. 눈은 아래로 깔고, 손으로는 이상한 동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수님의 호감을 살 수 없습니다. 교수님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느끼지 않고, 매우 낮은 점수를 줘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동은 자신 있게 하십시오. 과감한 제스처를 사용하고, 똑바로 교수님의 눈을 마주치십시오.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성량은 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중요도에 따라 억양을 적절히 조정하십시오. 그와 함께 자신감을 갖고 말해야 합니다. 대답에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자신감이 있는 것이 보다 호감을 줍니다.

면접을 하러 갈 때, 옷차림과 외모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머리모양은 단정한 것이 좋습니다. 강렬한 색깔로 염색한 머리카 나 너저분한 머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자라면 수염도 깨끗이 깎도록 하십시오. 여자는 짙은 화장은 피해야 합니다.

면접보기 전에 양치질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더라도 입냄새가 심하면 좀 꺼리기 마련입니다. 미리 목욕도 해두어서 체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옷은 유채색보다는 무채색 계통의 색깔을 입으로써,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iv)심층면접

심층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빨리 설명하기’ 이다!

심층면접에 대한 조언 자료집이나 기사를 꼭 보아도, 어느 곳에서 빠르게 설명하라는 말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고흥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심층면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교수님이 몇 마디만 듣더라도 압니다.

한 문제 가지고만 수십명의 학생을 대하니,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집어내는지 집어내지 못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고흥석 교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푼 문제를 거창하게 설명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고 한마디만 하고, 보충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빨리 설명한 뒤 남은 시간에는 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을 받아 결국은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남은 시간에는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교수님에게 호감을 주도록 하십시오.

학교별로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

서울대와 포항공대, 서강대 등등 대학마다 모두 문제 스타일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아는 사실이어서 굳이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학교 과정을 물어본다구?

심층면접에서 대학교 과정을 물어본다고 해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대학교 교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심층면접의 주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고등학교의 기본 내용과 그 심화내용만 잘 알더라도 심층면접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지 말고,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몰리는 학과 (예 : 서울대 의예과) 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대학교 과정의 문제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되, 그것을 설명할 때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쉽게 설명 하십시오.

5.수시모집

최근에는 수시모집으로 뽑는 인원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총 대학정원의 40% 정도를 수시로 뽑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수시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번쯤 지원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시라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하게 되면, 수능이라는 큰 관문의 부담없이, 남보다 더 일찍,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마음껏 놀고,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모집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시모집은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시모집과는 달리, 수시는 원서를 쓸 수 있는 대학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원서를 무한정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시는 정시와는 달리 추가합격이 없으며, 다른 곳에 합격하여 등록인원이 빠져나간다면, 정시 인원으로 충원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 몇몇이 여러 군데에 복수합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그보다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때거지로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을 일찍, 부담없이 가기 위하여 대다수의 학생이 수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쟁률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원자의 대부분은 허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수시는 정시(수능)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아가므로, 정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단 수시공부를 하는 시간만 빼앗기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서를 접수하고, 내신을 입력해서 예상을 해보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면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수시 시험(논술, 면접 등)이 끝난 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그 시간동안, 학생들의 대부분은 정시 공부에 집중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웬지 합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합격하게 된다면 지금 하는 정시 공부는 해봤자 쓸모없게 된다는 생각 또한 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시공부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사실, 대부분이 떨어집니다), 그 충격 때문에 보통 1주일 정도 마음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수시원서를 3개 이상의 많은 학교에 쓴 후, 모두 떨어지게 된다면, 그 타격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열심히 한다면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역지로 수시로 가려다가, 위와 같은 케이스로 망하게 되는 친구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어정정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는 가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반에서 2~3등 하는 정도면, 전국에서 반에서 2~3등 하는 학생들은 모두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쓰기 때문에, 별다른 차별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최소한 전교 10등 이내에 들고, 기타 특별한 수상경력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신성적을 적게보는 대학교 (한양대, 고려대, 아주대, 경희대 등..) 는 내신성적이 별로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상초월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수시모집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시에 올인(all-in)을 해선 안됩니다. 내신 · 모의고사 · 통합논술 성적이 바닥을 박박 기어서, 수시모집 중 전공적성 검사 등의 경우밖에 기회가 없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정말로 수시 아니면 길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길어야 2주정도의 준비기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는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수시모집이 40%나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시를 통해 가는 학생들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위권의 대학교들은 대부분 미달이 나기 마련이며, 상위권의 학교들은 몇몇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죄다 싹쓸이를 해버리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시기간에는 학생들이 정시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여, 그 기간에 수능 및 논술공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시모집 시험을 보고 온 후에,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수능공부를 해야 합니다. 기대는 실망과 좌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합격하는 인원은 극소수인데, 그것이 자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시험을 본 후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한다는 기대를 하면, 상대적으로 수능공부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게되고, 이는 공부의 감(感)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시에서 합격을 한 후 저등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최저등급을 딱 맞출 정도로만 공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최저등급을 만족하지 못하여 떨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04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모집 2학기에서, 최저등급 미달로 합격자 1200명중 624명이 탈락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위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2%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손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

6.시간(Time)에 따른 고등학교 공부법

수능공부를 시작하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첫번째 수업이 수능공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수능공부는 다른 공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수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재 및 아이디어가 초등학교 과정에도 묻혀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수열 쪽에서 출제되는 그림 및 소재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녹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수능은, 특정 기간부터 공부를 시작한 사람보다, 어렸을 때부터 착실히 정규과정을 잘 밟아온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수능공부를 한다고 내신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내신에서 주요과목을 제대로 공부해놓으면, 수능 공부에 좋은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수능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때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마음을 잡고 공부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논술 공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영역과 언어 영역은 고1 때부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어느 날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단어·숙어또한 꾸준히 외어서 쌓아 나가야 합니다. 특히나 외국어영역은 고3때 공부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1,2학년 때 잡아두어야 합니다.

고1, 고2때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서 정해진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 됩니다.

막연하게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서, 미리 수능준비를 하면서 골머리를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충실하고, 복습을 착실히 해 나가면 됩니다. 내신을 준비해나가면 수능과 논술은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과 논술에 필요한 지식과 기본기 등을 익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탐구영역과 수리영역은 내신 준비를 제대로 해놓으면, 후에 가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고1

고1기간에 배우는 공통수학(수학 10-가,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통수학이 수능의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출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수학 범위는 간접적으로 아이디어 등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통수학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후에 수능을 공부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고3올라간 후 공통수학 기반이 약하여, 수학점수가 나와서 굉장히 후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때, 시간관계상 공통수학을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1학년 때 제대로 잡아놔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1 여름, 겨울방학 때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통수학을 복습해야 합니다. 공통수학 교과서를 한번 쭉 훑어보거나,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는 것은 공통수학의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1때는 상대적으로 공부시간이 널널하므로,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의 기초를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영역은 비문학 공부법을 익혀 연습하고, 여러 문학을 공부해나가고, 외국어영역은 문법의 기초를 쌓고, 단어를 되도록이면 많이 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단 논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 자신의 일기장 등에 글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십시오. 일상에서 느꼈던 것을 일기를 쓰기도 하고, 시로 표현해보기도 하면 표현력은 굉장히 발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은 표현력이 논술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아나아가는 것을 보면,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학기중에는 내신에 완전히 올인하십시오. 이 때는 특별히 신경쓸 것은 내신밖에 없습니다. 내신 점수를 최대한 잘 받아놓도록 하십시오.

고1 여름방학, 겨울방학

고등학교 방학 때는 다음 학기에 배울 것을 선행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남은 시간에는 수능과 논술의 기초를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영어공부는 많이 해두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수능공부할 때 매우 도움이 될뿐더러, 사회에 가서도 좋은 영어실력은 훌륭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지식을 쌓아둬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언어영역과 논술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책은 아무거나 읽는 것 보다는, ‘고교생을 위한 철학, 서양사, 동양사’ 같이 고교생의 배경지식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나온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고2

고2가 되면 학교에서는 수능, 논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수1, 수2, 탐구영역, 제2외국어 등)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능의 압박은 고3보다 덜한 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고2가 되면,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고 연애를 하기도 합니다. 풀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고2때에 해둬야 할 것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소화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은 끈기가 필요한 고3생활을 위해 힘을 비축해두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할 일을 다하고 놀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러나, 위와 같이 말하기는 쉽지만, 자신이 할 일을 다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을 복습을 해가면서 매일 확실히 소화해 내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선 그 정도 고통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에는, 교과서의 문제와 예제, 개념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처음에 배우는 기초적인 지수·로그·단원도, 고3때 올라가서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2때 놀았던 학생은, 시간없는 고3때 처음부터 참고서를 잡고 다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많은 반복학습을 통해서, 개념과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문제집 한권을 반복하면서 유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신대비도 될뿐더러 수능도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탐구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합니다.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과학1’과목(화학1, 생물1, 물리1, 지구과학1)을 2학년 1년동안에 걸쳐서 공부를 해나갑니다. ‘과학1’과목은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쉽기 때문에 교육기간 1년은 상당히 널널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놓는다면, 수능공부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과목도 과학과목과 마찬가지로, 배운 것은 확실히 익혀놓도록 해야 합니다.

고2 여름방학

고2 여름방학 때는, 고2 1학기동안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입시에 포함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학기에 배울 과목을 선행학습 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술 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어느정도의 기초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2 겨울방학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고2 겨울방학부터 수능공부를 시작하며,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2 겨울방학부터 시작한다면, 그 시간에 원서를 쓰는 재학생들에 비해 시간이라는 요소에서 이점을 확보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기라서 수능 때까지 공부를 질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재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2 겨울방학 때 어느만큼 수준을 올려놓느냐가 고3에서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이 수능 및 논술결과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대학을 결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 풀어서 맞춰보라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하는 감을 잡고, 공부의 방향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능기출문제는 수능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를 풀어가고 분석하면서, 수능의 출제의도, 수능의 마인드 등을 익혀가야 합니다. 시중에는 기출문제에 자세한 해설까지 달린 모은 책이 많으므로, 각 과목마다 한권씩 사서 꼭 보면 좋습니다.

수학은 수능에 필요한 진도를 마저 다 끝내고, 개념의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끝까지 진도 나가지 못한 부분을 모두 공부하고,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 약한 부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수능에 필요한 지식의 측면에서 총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표적인 유형같은 경우도 당연히 학습해놔야 합니다.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은 고1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을 이어가면 됩니다. 기초가 아예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각 영역의 기본을 알려주는 인터넷강의를 듣거나, 전문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어영역은 시간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분, 즉 고전문학같은 부분을 공부해둬야 합니다.

탐구영역은 방학 때가 공부의 절정(peak)입니다. 1년동안 배운 과목을 정리하고, 배우지 않았던 과목들을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고3이 되면 학기 중에는 탐구영역을 공부할 시간이 없으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둬야 합니다. 탐구영역은, 모의고사도 한 두번 풀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며,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3

겨울방학이 지나고 고3이 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지만, 고2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3은 3월 2일에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꾸준한 생활을 통해서, 양성피드백 시스템을 극대화시키며 진짜 고3이 되는 것입니다.

고3 학기 중에는 논술보다는 수능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수능을 못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공부와 논술은 아예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나 이과 수리논술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3월달 모의고사가 수능점수라 하시지만, 이는 3월달에 공부 안하는 아이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절대 3월달 모의고사가 수능점수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재수시절 때, 3월달 모의고사에 비해서 수능이 훨씬 더 잘나온 경우는 80명중에 30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영부영 고3을 지내면서, 할 것 다하며 놀 것 다 놀며 공부를 한다면, 3월달 모의고사점수가 수능점수로 직격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치가 3월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3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꾸준히 공부를 지속해나가야 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나가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로 볼 때, 이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지나고 보면 전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약 9개월의 시간동안,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겪고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며, 자신을 완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잠시 놀고싶을 때도 있고, 일탈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번 놀게 되면, 마음의 틈새가 벌어져 점점 더 놀게 됩니다. 노는 것은 적게 논다고 해서 안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신력의 문제이므로, 조금만 놀더라도 마음은 해이해지기 십상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며,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고3이 되면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수능대비용 문제집을 나가면서 수능을 학생과 함께 준비해나갑니다. 또한, 내신도 비교적 쉽게 내며, 내신을 내더라도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출제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학교수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학교수업을 주로 하면서 착실히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수리영역 공부법에서 말했듯이, 학교수업에서 나가는 문제집 한권만 파면서 유형을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수업과 동떨어진 공부를 한다면, 그 절대시간량은 4시간도 채 안되며 효율도 낮습니다. 하지만 학교수업과 연관된 공부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습시간은 학교수업과 합쳐져서 늘어나며, 공부를 해나가기도 수월합니다.

6~7월달까지는, 수능 문제풀이에 필요한 기초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언어, 외국어 영역은 지문 분석능력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적당한 양의 지문을 접하면서, 지문을 보는 능력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수리영역은 학교에서 나가는 문제집을 따라가거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한권을 정해서 학습해나가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개념들 (공통수학, 중학교 도형 등)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3~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탐구영역은 솔직히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수업에서 나가는 것을 복습하는 정도로 해두고,

학교에서 나가지 않는 탐구영역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해나가십시오.

여름방학이 되면, 자신 6~7월달까지 세웠던 계획들 중에서, 못했던 계획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톱니바퀴가 하나 빠진 채로 달려나가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유형들을 익혀나가고, 또한 문제를 맞추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반성’입니다. 자신이 못푼 문제들, 틀린 문제들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맞추지, 뭐~ 이번에는 실수였어!’ 하고 계속 풀어나가는 생각은 자신의 실력을 후퇴시킵니다. 틀린 문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것이 수능이었다면!’ 하고 오금이 저릴 정도로 떨면서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지난 시간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탐구영역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탐구영역의 공부는, 못한 부분은 여름방학이 끝난 뒤에 보충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여름방학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줘야 좋습니다.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 역시 탐구영역을 공부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수외는 본격적으로 문제집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양치기를 해나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양치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문제집을 한번 풀고 버려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문제집을 풀고, 아리까리했던 문제들은 정리해서 서브노트에 그 유형과 접근방법을 정리하거나, 그 문제에 응용된 개념들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양치기를 하면서 실수로라도 틀렸던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오답들은 다시한번 봐야 합니다.

고3 여름방학

고2겨울방학과 동등하게 중요한 기간이 바로 고3여름방학입니다. D-day의 숫자의 자리수는 두자리로 줄어듭니다. 여름방학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저는 그것을 두 번이나 경험했기에,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땅이 타오를 듯한 더운 날씨는 학생들의 열정을 녹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든 시기를 극복해야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지와 티셔츠가 얼마나 땀으로 젖어들었고, 집중으로 인한 땀에 젖은 몸을 몇 번이나 샤워했느냐는 후에 가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그냥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인생을 결정하는, 단 한번뿐인 기회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는 바로 이 기회를 축복으로 생각하며, 경건히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곡에 놀러가거나, 바다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선 분명히 자신에게 같이 가자고 꼬시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은 100%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상, 놀러간 친구들 중에서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열에 하나도 안됩니다. 유혹을 참기는 힘들겠지만, 당당히 거절하고 다시 자습실로 가야 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상당히 덥습니다. 이때는, 독서실로 가도 좋지만, 전 학교나 학원 자습실로 가길 추천합니다. 그곳은 어떤 ‘의무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으므로, 꾸준히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냉방시설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잘되어있기 때문에 쾌적한(?)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어떤 공부방법으로 공부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누가 더 의자에 엉덩이를 더 많이 붙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절대시간이 많으면, 대단히 효율적인 공부법도 능가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나가고, 참고, 다시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9월달에 접어들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다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름기간에 풀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잡습니다. 열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때가 바로 이 9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는 여름방학 중 발견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 ‘본격적으로’ 맞추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차분히 읽는 연습을 하고, 무게있게 쉬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다들 열심히 하는 때이기에 그리 많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10월달이 되면 친구들끼리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여태까지 같이한 친구들이기에, 그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지고, 대화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때, 소외되지 않으려고 시간을 소비하면서 같이 있기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때까지의 대인관계는 밥을 먹고 쉬는시간에 ‘잠깐’ 얘기하는 정도로만 유지하고 모든 정신력을 수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얘기가 좀 길어진다면, 과감히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최후의 5분을 잘 싸우는 자가 전투에서 결국에서 승리합니다. 10월달과 11월달을 잘보낸 학생이 수능을 잘봅니다. 저는, 이 기간이 다른 어떤 기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을 차분히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몸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1.개념총정리와 2.실전감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가야 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므로, 실전감각에 중점을 좀더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것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좀더 좋습니다. 주중에는 실전감각을 기르고, 개념정리는 주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정리는 여태까지 작성해둔 서브노트를 봐도 좋고,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념정리의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전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전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야 합니다. 이 실전모의고사 문제집은 사람들의 평을 들어가면서 사야 합니다.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집이나 지극히 쉬운 문제집보다는,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집을 봐야 합니다. 실전모의고사는 혼자서 푸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내기라도 하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감이 극도에 다다라서, 실전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원에서 수능 원서접수를 할 때 나눠주는 수능안내서 뒤편에 있는, OMR답안지를 복사해서 답안 마킹하는 것을 연습해도 좋습니다. 친구와 서로 바꿔서 채점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모의고사에 대해서 평을 하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필수적으로, 해마다 두 번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분석해야 합니다. 수능 기출문제보다 더 가깝게 수능에 연결되는 것이 그 해에 실시된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출제위원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직접적으로 참고하며, 난이도를 조절하며 수능문제를 내기 때문에, 확실히 분석해야 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과 마찬가지로 KICE에서 출제하기에, 매우 문제질이 좋습니다. 2~3번 반복하며 분석하면서 수능 난이도를 예측하고, 신유형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능 난이도의 예측은 과목간 유불리를 줄이려 한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하면 됩니다. 저 또한 6월 9월 평가원에서 치러진 영역에서의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참고로 해서 수능의 난이도를 예상했고, 이는 하나도 빠짐없이 적중했습니다.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06수능을 예로 들자면, 수리 가형은 6월 9월 평가원 때의 표준점수가 나형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실제 수능에서는 더욱 어렵게 났고, 수리 나형은 표준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실제 수능에서는 더욱 쉽게 났습니다. 특히나, 수능보기 2주일 전에, 평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서 대체적인 수능 난이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가 황당하게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평가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거짓말만 하려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최대한 학생 입장을 배려하려 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수능이 15일 이내로 접어들면, 최종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들은 해도 좋을 것 같고, 안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수능 15일 전(약 2주전)자신의 상태는, 공부가 다 된 것 같기도 하면서, 모든 영역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기간입니다. 이 때 끝마무리를 아주 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뭔가 공부다 된 것 같다고 해서 손을 놓아선 안되며, 부족한 부분을 계속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이 과목을 하면, 저 과목이 부족하고, 저 과목을 하면 이 과목이 부족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많이 걸립니다. 수능 2주전이라도 매일 자습을 해야하며, 이는 주말에도 예외를 두어선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수능보기 전날 오후 7

시 반이 되어서야 이 부분들을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컨디션을 조절한다고 해서 공부에 손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계속 해오던 것처럼 꾸준히 공부를 해야합니다. 수능 전날에 공부하지 말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어쩌면 그 말은 ‘수능전날에는 공평하게 공부하지 말자’고 타협하는 의견일수도 있습니다. 수능 전날에 공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최소한 마이너스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감을 살리는 데에 도움이 될뿐더러,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주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풀어도 좋습니다. 수리영역같이 장기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과목보다는, 과학탐구같이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하며, 점수가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날에 공부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단, 정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정도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능은 긴장하고 봐서는 안됩니다. 한문제 한문제를 더 맞추려고, 어떻게든 안틀릴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을 다 맞은 학생이, 수능을 다 맞은 방법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라고 말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오히려 수능 문제가 보입니다. 수능 문제는 시중문제와 같이 지저분한 문제가 없고, 실수를 억지로 유도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맞춰주게 하려고 애를 쓴 문제들입니다. 신유형이더라도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편히먹고, 수능을 봐야 합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논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능 끝났다고 아예 손을 놓고 평평 노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다들 논술 공부에 올인을 할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은 별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논술 및 면접 공부를 이 기간에 열심히 해 놓으면, 상대적인 효과로 논술 및 면접 시험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7. 추가 Tip

<난 특별하지 않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력하라.

냉혹한 사회를 생각해보라.

그들이 상관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성적 뿐이다.

능력은 대학에 가더라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사회는 당신들의 외모, 끼, 말빨을 봐주지 않는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마법의 방법은 없다>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구요?

공부 잘하는 분들이 다들 나름의 방법을 말하는데요.

과연 전국 1등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마법같은 방법이 있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방법을 썼더니 곧바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효율의 기복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낮을 때를 우리는 흔히 슬럼프라고들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슬럼프라는 것은 어떤 특정기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에도 효율이 안오르는 시간, 즉 슬럼프가 몇번씩 찾아옵니다. 책을 읽다가도 이해가 잘 될 때가 있는 반면, 마치 슬럼프처럼 갑자기 책이 잘 이해가 안되는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것을 슬럼프라 여기고 극복방안을 찾으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여러분이 슬럼프라고 인식하고, 그 속에 여러분을 가둬두곤 하는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슬럼프라 인식하지 않고, 그저 그저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목표가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 자체에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의지가 다른 학생들보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가고 훈련해가는 것을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라>

하루를 어떻게 끝마무리를 하느냐도 공부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12시간씩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잠들기 전에 게임 10분을 하고 자게 된다면, 그 하루는 게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 전에 하는 TV 30분, 장기 한 판, '인터넷 잠깐' 이 그 하루를 의미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겪었던 것을 자는 시간에 논리적으로 정리한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자고 일어나니 신기하게도 저절로 풀려있는 것을 경험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 다른 특정한 일을 하게 되면, 뇌가 부담을 느끼며 그것으로 다시 새로 논리를 짜게 되어서 공부한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 주위에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지었던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수능에서 모의고사 이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하루를 경건하게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결과에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개념이 우선?>

문제는 안풀고 개념만 공부하면 시험은 잘본다?

그말만 믿고 그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개념만 공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우선인 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만, 개념공부만으로 시험을 잘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기출문제도 분석해서, 경향도 알아봐야 합니다. 실전연습도 해봐야 합니다.

<너무 빨리 푸는 것도 좋지 않다.>

문제를 푸는 50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20분만에 풀고 검토하는 것보다, 40분동안 풀고 10분동안 검토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빨리 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빨리 풀고 검토를 하면 많은 검토시간이 주어져 더 효율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를 하는 중에, 처음에 문제를 접했을 때의 고정된 시각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하효과'에만 의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검토를 들어가더라도 실수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깊게 다시 읽어야 겨우 보일까말까 합니다.

한번 풀 때 제대로 풀어야, 실수를 줄이고 문제를 더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를 천천히 읽으십시오. 답이 아닌 것을 천천히 지워나가십시오. 문제는 풀어서 맞춰야 점수가 됩니다. 푸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한 덩어리로 모으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어느 물리학자가 호기심에 그 크기를 조사해보았다고 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주를 커다란 체육관 정도의 크기로 비유하면,

그 '덩어리'의 크기는 그 체육관 안에 있는 먼지 한 톨보다 작은 크기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덩어리' 중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부피는 그보다 작을 것이고,

그 지구 안의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작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빅뱅 이후의 거대한 시간 중, 찰나보다 짧은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바로 지금 이 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기적입니다.

모든 시간 그리고 사건은 어떤 연관성을 지녀서라도 크든 작든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기적과 같은 바로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길 바랍니다.

이 순간은 미래의 어떤 시점과 긴밀히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